

“DX 기둥 위에 AX 엔진” AW 2026, ‘지속가능한 제조 엔진’ 가동한다...500개사 집결

기존 대량생산 시스템은 공급망 불확실성,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 규제 등 글로벌 거시 압박 속에서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로써 제조 경쟁력의 척도도 기존 양적 팽창에서, 자원 낭비를 줄이고 복원력을 높인 운영 혁신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이 흐름에서 디지털 전환(DX)으로 쌓은 데이터 기반 위에 인공지능 전환(AX)이 향후 제조 인프라를 정의할 전망이다.

그 중심에 자율성(Autonomy)이 있다. 인적 개입에 기대는 수동적 자동화(Passive Automation)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설비와 시스템이 스스로 상태를 감지·판단해 실행까지 연결하는 자율 흐름이 생존 방법론으로 급부상했다.

다만 현장은 여전히 분절돼 있다. 설비 가동과 데이터 생성은 구간마다 끊기고, 품질·에너지·안전은 서로 다른 체계에서 파편적으로 최적화된다. 외견상 정상 가동처럼 보여도 전체 효율이 정체되는 ‘부분 최적화(Partial Optimization)’의 함정이 생긴다.

최근 기대받는 제조 혁신 방법론인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Autonomous Manufacturing)가 작동하려면 토대부터 다져야 한다. 센서 계측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네트워크 안정성과 제어 정밀도가 담보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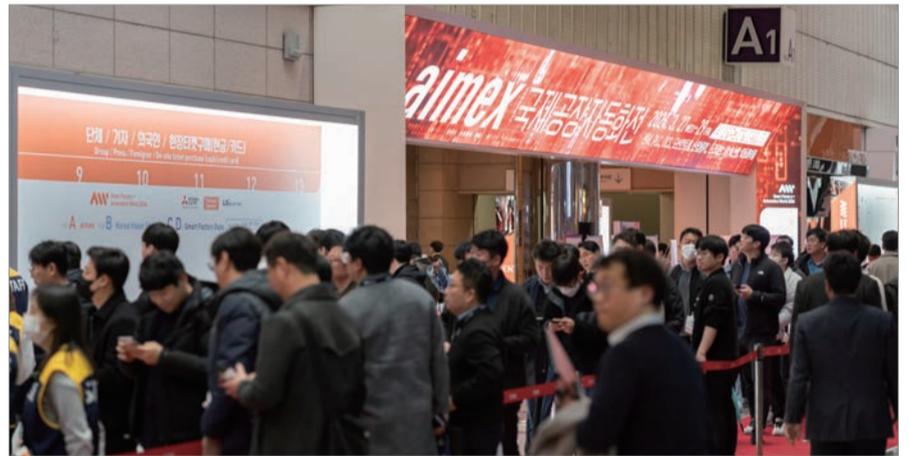
한다. 이러한 자율성의 한계는 알고리즘만이 아니라 정밀 측정과 신뢰 가능한 시뮬레이션의 결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무대가 ‘제36회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2026, 이하 AW 2026)’이다. ‘자율성, 지속가능성의 동력(Autonomy, The driver of sustainability)’이 슬로건인 올해 전시는 이달 4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전시장 코엑스 전관에서 열린다.

5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2200여 부스 규모로 꾸러지며, 코엑스·(주)첨단·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KOSMO)·한국머신비전산업협회(KMVIA)·한국무역협회(KITA)가 공동 주최한다. 전시 사무국은 약 8만 명 방문을 전망했다.

전시의 핵심 구조는 자율제조 파이프라인을 단계별로 체험하도록 설계한 점이다. 센서·계측 등 기반 기술이 감각과 신경계를 맡아 데이터를 만들고, 운영 소프트웨어가 의사결정과 작업 변경까지의 시간을 줄여 ‘뇌’ 역할을 수행한다. 물류는 ‘혈관’이다. 생산 계획 변동에 현장 물류가 즉각 응답하는 폐쇄적 순환구조(Closed-loop)가 구축될 때 공장은 단일 유기체처럼 가동한다.

전시 구성은 국제공장자동화전(aimex)·한국



머신비전산업전(Korea Vision Show)·스마트공장엑스포(Smart Factory Expo)·스마트물류관(Smart Logistics Zone)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했다. 순서대로 센서·계측·제어·산업용 네트워크 등 인프라 근간을 제시하고, 공정 변동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예측의 눈’으로 비전의 역할을 확장한다. 이어 생산·품질·에너지 데이터 통합으로 의사결정 지원을 높이고 공정 간 단절을 메우는 전략을 선보인다. 끝으로 자율 이송, 창고 운영, 피킹·패킹을 제조 계획과 실시간 동기화해 낭비와 탄소 배출을 함께 낮추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올해는 ‘AI 운영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도 전면에 배치했다. ‘AI 팩토리 특별관(AI Factory Pavilion)’은 적용 사례 전시, AI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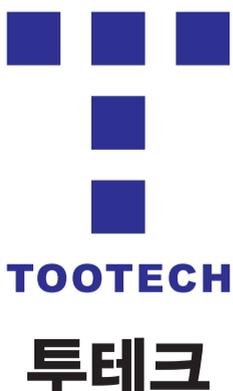
개선법, 기계학습운영(MLOps) 등을 조명한 다. ‘휴머노이드 로봇 특별관’은 범용 로봇이 협업 파트너가 되기 위한 안전 기준과 작업 시나리오를 다루며, 현장 투입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을 검증한다.

여기에 200여 세션 규모의 콘퍼런스·포럼과 수출 상담회 등 부대 프로그램을 병행해 인력 효율화, 품질 향상, 에너지 절감, 운영 안정성 확보 방안도 제시한다. 전시 사무국은 “제조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보정하는 운영 순환의 실물을 제시하겠다”며 “‘똑똑한 공장’ 그 이상의 ‘지능적 프로세스 구동’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mandt@hellot.net)

TOOTECH
www.tootech.co.kr

부스 No. A540(1층)



레이저 라벨 프린터

모든 종류의 라벨, 오직 레이저 하나로

2026년 부터는 리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용 가능 용지	YUPO	WhithPET
	SilverPET	감열지
	고열라벨/케어라벨	레이저 전용 라벨

W. www.tootech.co.kr

T. 02-886-6506

E. a1234@tootech.co.kr

멘토티앤씨

직교 로봇



직교 로봇 'JMLX 시리즈' 액추에이터를 중심으로 한 라인업을 보유했다. 상면 카운터 홀을 활용해 취부가 간편하고, 센서 레일 일체형 구조로 센서 위치 이동이 자유로워 좌우 공간 활용성이 높다. 베이스와 커버를 교차 배치한 보호 구조로 내부 보호와 파티클 유입 억제에 중점을 뒀다. 직렬·병렬·폴리 타입 등 구성 선택 폭을 제공해 공정 이송·조립·취출 등 다양한 자동화 셀에 적용 가능하다. 모듈 단위 구성으로 라인 변경 시 확장·교체도 수월하다.

부스 NO.A550 www.mentortnc.com

빈더

센서·액추에이터용 원형 커넥터



센서와 액추에이터 연결에 최적화된 원형 커넥터 제품군이 특징이다. IP40부터 IP69K까지 보호 등급을 제공하며, UL·VDE·Ecolab 승인 모델과 FDA 준수 모델도 갖췄다. 2~12핀 구성에 납땜·크림프·딥솔더·케이블·연선 등 다양한 결선 방식을 지원한다. M5·M8·M12 나사 체결형을 직선·앵글·플랜지 타입으로 제공하며, 듀오 커넥터·이중 분배기·연결 케이블까지 포트폴리오를 갖춰 식품·세척 환경부터 일반 산업 설비까지 폭넓게 대응한다.

부스 NO.A730 www.binder-connector.sg

보쉬렉스로스코리아

고하중 컴팩트 모듈



CKK/CKR-280 컴팩트 모듈을 내세운다. 최대 385kg 하중을 처리하면서도 설치 공간을 줄인 구성이 특징이다. 최대 속도 5m/s, 가속도 5g를 지원해 고속 사이클 작업에 대응하며, 반복정밀도는 CKK ±0.005mm, CKR ±0.05mm 수준을 제시한다. 고강성 설계로 단축부터 다축 시스템까지 유연하게 확장 가능해, 생산성 향상과 사이클 타임 단축을 겨냥한 라인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제안된다. 조립·이송·패키징 공정에 적용 폭이 넓다.

부스 NO.A280 www.boschrexroth.co.kr

성엔지니어링

IO-Link 네트워크·케이블 솔루션



SE-LINK는 IO-Link 모듈과 성엔지니어링 케이블을 조합한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통신 지연과 신호 손실을 줄여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겨냥한다. EMC 시험 기반 품질 인증(KC·CE·UL 등)으로 현장 적용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슬라이스 I/O 제품은 슬라이스 형태로 확장 가능해 설비 증설 시 경제성을 높인다. 다양한 장치와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배선·연결 구조를 단순화하고, 유지보수 시간을 줄이는 연결 인프라를 제안한다.

부스 NO.A130 sungeng.co.kr

세팩트

통합형 스위치 박스



통합형 스위치 박스 'TLS-SB'는 TLS 시리즈와 결합해 게이트 박스 기능을 수행하며, 커넥터 방식으로 경광봉과 호환돼 설치·배선 작업을 단순화한다. 스위치 박스와 주변 구성품을 통합해 현장 공수와 설치 시간을 줄이고, 배선 오류 가능성을 낮춘다. 라인 증설·설비 개조 시에도 모듈 단위로 빠르게 적용·교체할 수 있어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는 구성이다. 컴팩트한 통합 설계로 패널 내 공간을 아끼고, 현장 표준화에 유리하다.

부스 NO.A500 www.safect.co.kr

스위스아미에트

기어드 선형 액추에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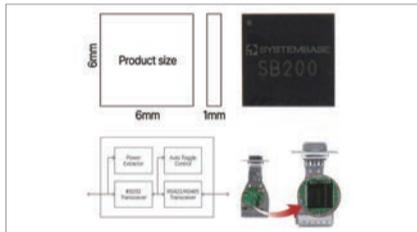


'기어드 선형 액추에이터'를 중심으로 정밀 구동 기술이 대표적이다. 회전 모터에 기어헤드, 일체형 리드 스크류와 너트를 결합한 유닛 구조로, 제한된 공간에서도 높은 토크와 정밀도를 겨냥한다. 직경 6~32mm의 소형 사이즈를 제공하며 연속 축방향 힘은 3N부터 1,920N까지 대응한다. 최대 1,294:1 감속비 옵션을 통해 고하중·고정밀 위치 제어가 필요한 장비·자동화 모듈 적용성을 높였다. 의료·분석 장비부터 반도체·FA 소형 구동 축에 어울린다.

부스 NO.A646 www.swissamiet.com

시스템베이스

원칩 시리얼 컨버팅 트랜시버



세계 최초 RS232→RS422/RS485 컨버팅 트랜시버 원칩 'SB200'이 주력이다. RS232 트랜시버와 RS422/RS485 트랜시버 2개, 포트 전원 추출기를 한 칩에 집적해 부품 수와 주변 회로를 줄인다. 최대 460.8kbps 지원, RS422 멀티드롭·RS485 에코, 출력 자동 개폐를 제공한다. RS232 신호에서 전원을 뽑아 동작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리얼 변환기·계측·FA 장비 설계를 단순화한다.

부스 NO.A524 www.sysbas.com

오토닉스

고성능 HMI



쿼드코어 CPU 기반 HMI 'iTP 시리즈'는 빠른 데이터 처리 성능으로 현장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프로젝트 호환성과 SVG 라이브러리 지원으로 화면 구성·개발 효율을 높였다. VNC 및 웹 기반 기능으로 원격 모니터링·제어 환경을 제공하고, 8.4~15인치 디스플레이 라인업을 갖췄다. 게이트웨이 모듈과 전면 IP66 등급을 적용해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

부스 NO.A380 www.autonics.com

유진로봇

피지컬 AI 불량 검사 로봇



불량 검사 로봇 '옵니디렉셔널(Omni-directional)'은 좁고 복잡한 현장에서도 제자리 회전과 측면 주행이 가능한 전방향 이동을 기반으로, 검사 공정의 접근성과 반복성을 높였다. 유진로봇 자율주행로봇(AMR) '고카트 300 옵니(GoCart 300 Omni)' 상단에 협동 로봇을 결합한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콘셉트다. 비정형 물체를 인식·조작하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표면의 미세 불량을 다각도에서 자동 검사하도록 설계됐다.

부스 NO.A200 www.yujinrobot.com

테크맨로봇

독립형 협동로봇 솔루션



TM 독립형 협동 로봇 솔루션이 각종 산업에 도입 중이다. 다양한 기반하중과 작업 반경 라인업을 바탕으로 제조·물류 현장의 폭넓은 수요에 대응한다. 지능적이고 단순한 설계를 통해 도입·운영 부담을 낮춘 점을 강조한다. 무인운반차(AGV) 적용을 위한 DC 전원 기반 TM-M 타입과, 반도체 라인 적용을 겨냥해 SEMI S2 인증을 완료한 모델도 있다. 이는 TM5-700·TM5-900부터 TM12·TM14·TM16·TM20까지 라인업을 제시한다.

부스 NO.A317 www.tm-robot.com

하이윈코퍼레이션

산업용 멀티축 로봇



산업용 멀티축 로봇(MULTI AXIS ROBOT)은 최소한의 설치 공간에서 고성능을 구현하도록 설계해 협소한 셀에서도 자동화 적용성을 높였다. 반복 정밀도가 필요한 소형 부품 취급은 물론, 생산 라인 전반의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순 픽업플레이스부터 공정 내 이송·조립까지 폭넓게 대응하며, 셀 단위 증설 시 레이어 변경 부담을 줄이는 컴팩트 로봇 옵션을 제시한다. 반복 작업의 사이클 타임 단축과 라인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부스 NO.A460 www.hiwin.kr

한국엡손

산업용 로봇(SCARA·6축)



엡손 로봇은 세이코 엡손 그룹(Seiko Epson Group)의 로봇 설계·제조 부문이다. 1983년부터 공장 자동화를 위한 SCARA 및 6축 산업용 로봇을 공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생산 현장의 이송·조립·취출 등 반복 작업에 대응하는 산업용 로봇 포트폴리오를 내세운다. 전 세계 제조 현장에 3만 대 이상 설치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용과 라인 적용성을 강조한다. 자동화 셀 구성과 공정 최적화 관점의 적용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부스 NO.A410 www.epson.co.kr



EXHIBITOR LIST 참가업체 리스트

부스 번호	업체명	부스 번호	업체명	부스 번호	업체명
A432	강유시스템 주식회사	A100	(주)성일기공	A760	잘만정공(주)
A905	(주)굿모닝계측기	A500	(주)세팩트	A630	제이엔제이테크(주) 시시도 정전기
A804	기기가이피씨	A834	(주)센서시스템기술	A127	지콤
A804	기가컴퓨팅	A734	수주테크	A452	(주)지테크시스템
A315	뉴로클	A754	슈말츠(주)	A640	(주)케이지오토
A123	다래비전(주)	A646	스위스아미에트(주)	A730	케이티엠테크놀로지(주)
A108	다셀 (주)	A670	스위치랩인태세날	A220	(주)큐라이트
A824	(주)다인큐브	A580	스타코 인스트루먼트 / 알에스코리아	A903	큐블러코리아(에프앤비솔루션)
A632	주식회사 단해	A907	(주)스통 (스통레이저)	A918	(주)큐인탑
A772	던커모터 코리아	A524	시스템베이스(주)	A317	테크맨로봇
A370	(주)데카스트	A471	(주)썬텍	A540	투테크주식회사
A830	(주)독이엔지니어링	A256	(주)아펙스다이나믹스코리아아이엔시	A764	트랜센드코리아
A766	동양전기공업(주)	A430	애니텍 테크놀로지	A804	팀그룹
A914	두성시스템 (주)	A650	에다웍스(주)	A710	주식회사 파스텍
A920	레이저발코리아(주)	A230	(주)에버넷전자	A242	(주)파익스
A420	리탈코리아	A810	(주)에스에이치텍	A762	팬코트레이딩(주)
A560	마우저 일렉트로닉스	A400	주식회사 에이던로보틱스	A916	페스트 펜스
A600	(주)만회기전	A828	(주)에이치알티로보틱스	A620	프레스토솔루션
A510	맥스모터코리아	A118	에이치엔티	A620	피아이크코리아
A550	주식회사 멘토이엔씨	A110	에프에이시스템(주)	A562	피파토코리아
A832	모넷코리아	A750	엑소	A460	하이원코퍼레이션(주)
A390	(주)모터114	A290	(주)엔피엠코리아	A140	(주)한강에프에이
A800	미키펠코리아 주식회사	A660	엘모션컨트롤	A820	한국 쓰리엠
A514	바우머코리아 주식회사	A450	엘엠아이 테크놀로지스	A410	한국옵슨(주)
A104	(주)바움뉴텍	A740	주식회사 엠씨테크	A700	한국이구스
A720	바이드물러코리아(주)	A530	(주)엠엠티	A555	한국전자기술연구원
A470	(주)반도하이텍	A380	(주)오토닉스	A652	(주)한국쓰바키모토
A836	반석정밀공업(주)	A372	(주)오히너코리아	A900	한국플루크
A321	발루프코리아	A816	주식회사 웰론시스템즈	A270	(주)한영닉스
A440	백호프로메이션	A610	유니버설 로봇	A520	(주)해원티앤디
A280	(주)보쉬렉스스코리아	A200	(주)유진로봇	A542	헵코슬라이드시스템즈리미티드 (헵코모션)
A342	빅웨이브로보틱스	A114	이엠아이	A300	(주)홍진에이티
A356	삼원엑트(주)	A770	이플러스이일렉트로닉코리아	A730	BINDER CONNECTOR
A534	삼익HDS(주)	A212	인아그룹	A910	RECOM POWER
A570	서일전자(주)	A212	인아텍앤코(주)		
A130	(주)생연지니어링	A210	(주)일메코리아		

SOLVING YOUR QUESTIONS - YOUR OEM PARTNER

Weidmüller technology | **Partner for your success**

180여년간 축적해온 우수한 금형 및 사출기술로, 바이드물러의 다양한 Metal connection이 포함되는 플라스틱 사출 제품을 고객의 필요에 맞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 및 공동 마케팅 기회
· 고객 만족을 위한 우수한 서비스
· 다양한 산업 분야와 다양한 제품 라인업
· 고객 맞춤형 설계
· 디지털화 및 유지보수 지원

OEM made by Weidmüller

"SNAP IN"과 같은 혁신적인 connection 기술을 융합한 OEM 제품 개발로 귀사의 제품 개발 및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부스 No. A720 | Weidmüller

Autonics 2027년 창립 50주년

사전 마케팅 동의 이벤트

49+1

오토닉스 SNS Linked in 팔로우 및 A 홈페이지 회원 수신 동의하고 현장에서 **플랫 이벤트** 참여하면 **100% 선물 당첨!!**

오토닉스 A Hall (B홀 통로)

Booth No. A380

오토닉스 SNS Linked in 팔로우 및 A 홈페이지 회원 수신 동의하고 현장에서 **플랫 이벤트** 참여하면 **100% 선물 당첨!!**

Linked in | Autonics.com

TOOTECH www.tootech.co.kr

부스 No. A540(1층)

세계 최초!

리본이 필요없는 라벨프린터 출시

(레이저로 직접 인쇄, 지워지지 않아요)

투테크 레이저 라벨 프린터

이엠시티 주식회사

스마트 소방 원격관제



이엠시티 주식회사는 20년간의 대기업 설비 모니터링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의 시설 투자 없이 적용 가능한 소방 원격관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표 솔루션인 비디엠은 2025 CES 혁신상을 수상한 모바일 시설관제 서비스로, 화재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제공하고 오작동 발생 시 원격 복구를 지원한다. 수신기 종류나 제조사, 모델과 관계없이 기존 설비 그대로 적용 가능하며, CCTV 연동을 통해 화재 발생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부스 NO.LB109 www.emct.kr

SinceVision

3D 레이저 계측 솔루션



SinceVision은 초정밀 계측을 위한 3D 레이저 프로파일러와 레이저 변위 센서를 선보인다. 3D 레이저 프로파일러는 6400픽셀 초고해상도 기반으로 정밀한 X축 윤곽선 측정이 가능하며, 67kHz의 초고속 샘플링 주파수와 소형 장비에 적합한 높은 집적도를 갖췄다. 3천만 회 굽힘 내구성을 확보해 유연성도 강화됐다. 레이저 변위 센서는 최대 590kHz 샘플링 주파수와 ±0.02% F.S. 선형성, 0.02μm 반복 정밀도를 제공하며, 이더넷과 아날로그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을 지원한다.

부스 NO.B910 www.sincevision.com

브이원텍

AI 비전 검사 솔루션



브이원텍은 딥러닝 기반 AI 검사 솔루션 withAI와 이를 탑재한 엣지 디바이스를 선보인다. withAI는 AI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해 미세 결함을 검출하는 기술로,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적용해 딥러닝 방식임에도 기존 검사 방식 수준의 빠른 검사 속도를 유지한다. 엣지 디바이스는 고성능 소형 컴퓨터 형태로 다양한 인라인 제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고정밀 검사를 지원하며, MPR(로봇)에 탑재해 고정밀 피킹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

부스 NO.B432 www.v-one.co.kr

Zivid

산업용 3D 컬러 카메라



Zivid는 고성능 로봇 셀을 위한 산업용 3D 컬러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Zivid SDK와 결합된 카메라 솔루션을 통해 로봇 빈 피킹, 조립, 검사, 디팔레타이징 등 다양한 자동화 공정에서 높은 정밀도와 신뢰성을 구현한다. Zivid 3 XL250은 최대 4.5m 장거리 스캔과 넓은 시야를 지원해 디팔레타이징과 대형 빈 피킹에 적합하며, 블루 레이저와 주변광 억제 기술로 투명·반사 소재까지 안정적으로 인식한다.

부스 NO.B842 www.zivid.com/ko/

위즈코어

제조 DX 통합 플랫폼



위즈코어는 IIoT, 5G, AI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제조 환경 구현을 지원하는 제조 DX 전문 기업이다. AI 기반 공정 최적화 플랫폼 NEXPOM은 설비·센서·로봇 등 현장 데이터를 수집·분석·시각화해 생산 운영 효율을 높이며, 모듈형 구조로 다양한 산업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다. AI 에이전트 Widdy는 기업 내부 문서와 데이터를 자산화해 고객 대응과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으로, 다국어 지원과 시스템 연동을 통해 현장 및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부스 NO.B370 www.wizcore.co.kr

아이온

자기부상 이송·모션 제어 솔루션



아이온은 리니어모터 기반 자기부상 이송 시스템을 첨단 제조라인에 공급하며, 스마트 모션 제어와 이송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MITS-CIRCULAR LINE은 고속·고정도 구현과 소형 설치 공간을 바탕으로 생산 라인 효율을 극대화하고, 각 로터의 독립 제어와 모듈화 설계로 무부수 운용을 지원한다. 또한 Coreless·Core 타입 리니어모터와 초소형부터 대형 스테이지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제공하며, 전용 컨트롤러를 통해 다양한 PLC 및 제어기기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부스 NO.B531 www.eyeon.co.kr

알트시스템

머신비전 조명·트리거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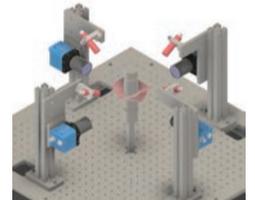


알트시스템은 광학 전문 설계를 기반으로 머신비전 LED 조명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국내 대표 기업으로, 조명·컨트롤러·카메라·렌즈·UI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TDI Line Scan Multi Strobing Application은 TDI 카메라 환경에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조명 효과를 동시에 구현해 초고속 검사에서도 단일 카메라로 이중 이미지를 생성한다. ALT-TDS-400 시리즈는 다수의 카메라와 스트로브 컨트롤러를 정밀 동기화하는 트리거 분배기로, 직선·원호 보간 동작에 최적화된 트리거 출력으로 고정밀 측정과 검사를 지원한다.

부스 NO.B524 www.altsystem.co.kr

사이로드

비전 검사·SI 솔루션



사이로드는 26년 업력의 공장자동화·머신비전 SI 전문 기업으로, 2D·3D 비전 검사와 AI 기반 영상 처리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3D 라인 프로파일 기반 전면 검사 솔루션은 마이크로 단위 해상도와 kHz급 고속 측정으로 컨베이어 고속 공정에서도 정밀 검사가 가능하며, 외관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했다. Triton SWIR 카메라는 IP67 등급의 컴팩트 설계와 400~1700nm 대역 센서를 적용해 가시광부터 SWIR까지 한 대로 커버하며, 거친 산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

부스 NO.B408 www.cylod.com

에드몬드옵틱스코리아

SWIR 광학 렌즈 솔루션



에드몬드옵틱스코리아는 글로벌 광학 기술 솔루션 선도 기업 에드몬드옵틱스의 한국 법인으로, 산업용 검사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광학 부품을 공급한다. TECHSPEC C Series SWIR 고정초점 렌즈는 900~1700nm 대역 SWIR 코팅을 적용해 최대 2/3" 센서까지 대응하며, 3.5~100mm의 다양한 초점거리와 컴팩트한 설계로 높은 활용성을 제공한다. TECHSPEC SilverTL SWIR 텔레센트릭 렌즈는 더블 텔레센트릭 광학 구조를 기반으로 동축조명과 호환되며, SWIR 코팅과 성능 최적화를 통해 정밀 검사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부스 NO.B520 www.edmundoptics.co.kr

정우오토시스

LED 수위 센서



정우오토시스는 LED 레벨센서를 특허 출원하고 독점 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현장의 수위 감지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2WAY LED 수위센서 JWLS-V2는 부레 기반 구조로 액체 수위를 정확하게 감지하며, 청색·적색 LED를 통해 정상 및 위험 수위를 직관적으로 표시한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PCB 도금, 반도체, 화학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설치 환경에 따라 맞춤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집수조 수위센서는 대형 수조의 수위를 LED로 시각화해 설비 관리 효율을 높인다.

부스 NO.B347

뷰웍스

고해상도 산업용 카메라



뷰웍스는 광학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자동화용 초고해상도 산업용 카메라를 개발하는 머신비전 전문 기업이다. 신제품 VT Sense 시리즈는 후면조사(BSI) 방식 센서를 적용한 고감도 TDI 라인스캔 카메라로, 높은 QE와 SNR을 바탕으로 가시광·UV·NIR 영역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무편조사 방식을 적용해 고속 촬영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했으며, 정밀 품질 관리와 고성능 검사를 요구하는 제조 현장에 적합하다.

부스 NO.B320 www.vieworks.com

라온피플

AI 기반 품질 검사 솔루션



라온피플은 제조 현장의 공정 최적화와 불량 예측을 위한 AI 비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생산형 AI 기술과 멀티모달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신제품 ADC 시스템은 AI 비전과 MLOps를 결합한 자동 불량 분류 솔루션으로, 공정 중 발생하는 품질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생산성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MES·ERP 등 상위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피드백을 강화하며, 불량 검출률 99% 수준의 성능을 바탕으로 제조 라인의 품질 관리 효율을 높인다.

부스 NO.B300 www.laonpeople.com

HALL B



EXHIBITOR LIST 참가업체 리스트

부스 번호	업체명	부스 번호	업체명	부스 번호	업체명
LB211	(주)교은테크	B234	(주)시원광기술	B105	(주)크레켄
LB302	(주)국제산업기계	B408	(주)씨아이로드	LB103	탐로보틱스
LB105	(주)금산엔지니어링	B511	씨로마인드	B626	주식회사 트리버전
B744	(주)빅센서	B452	씨씨에스코리아	B104	티에스텍
B204	(주)씨버	B224	(주)썬크론	B506	티움틱스(주)
LB305	(주)노바인스트루먼트	B838	이메스산업(주)	B480	(주)파이얼랜드
B941	주식회사 노비텍	B908	주식회사 아이박스	B515	주식회사 포스로직
LB300	주식회사 뉴시스	B738	(주)아이보우솔루션	B730	풍림무역(주)
B228	(주)다원산업	LB209	아이앤유시스템(주)	B724	에스피오주식회사
B445	다이트론코리아 주식회사	B531	주식회사 아이온	B718	Q1 그룹
B117	(주)다호트론	B216	(주)아이코어	B710	(주)바이텍스
B352	(주)대곤코퍼레이션	B212	(주)아이피에스오	B709	Mega Phase Technology
B746	대신정보통신(주)	B622	(주)아이피컨	B705	센웨이광(주)
B834	더모션(이모션텍)	B524	(주)알트시스템	B703	센웨이광(주)
LB311	(주)동양자동화	B360	(주)알파테크	B702	UNI
B748	(주)동일기연	B911	(주)엔비전	B700	UNI
LB100	(주)디앤시스	B508	주식회사 엔에이치씨	B701	Senwaylight (ShenZhen) Co., Ltd
B517	디월드	B520	에드몬드옵틱스	B703	Shanghai Inspect Spring Automation Technology Co., Ltd.
B111	디플리	LB204	(주)에스엔피씨오	B703	SHANGHAI MAGNITY TECHNOLOGIES CO.,LTD.
B300	리온피플(주)	B221	주식회사 에스에프원	B705	Shenzhen Dehong Vision Technology Co., Ltd
B490	렉스컴퓨터 주식회사	B724	에스피오주식회사	B910s	SinceVision
B604	리스광시스템(주)	B540	주식회사 에프에이에스	B700	UNI Optics
B108	(주)멜스룩스	B600	(주)엘로이렘	LB202	WINROLLER
B624	(주)명성아이엔티	B616	엘케이시앙	B702	Xiamen Micromatch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B220	(주)미래컴퍼니	B374	(주)엘핀	B735	Zhejiang Lanhai Optical Technology Co., Ltd.
B901	(유)비솔라코리아	B340	(주)엘퓨전옵틱스	LB206	ZH-EJANG MAIRUI ROBOT CO., LTD
B710	(주)비이렉스	B334	(주)엘버전		
B114	바이스코리아(주)	LB317	엘스캔		
B232	주식회사 뷰런	LB309	(주)엠피스		
B320	(주)비에스큐	B610	오즈레이(주)		
B545	비전아이즈(주)	B330	(주)와이피시스템		
LB306	주식회사 비텍	B743	우성일렉트릭(주)		
B630	(주)비파워	LB102	우일산업(주)		
LB303	산일센서 주식회사	B370	위즈코어 주식회사		
B120	주식회사 삼인이엔지	B420	(주)이미지포커스		
B200	(주)서원오토메이션	LB109	이엔시티 주식회사		
B500	(주)선하이테크	B347	정우오토시스		
LB112	세인플렉스(주)	B121	제이엠아이엔지		
LB201	(주)수퍼글로벌디자인그룹	B113	주원 / 피에조 스테이지 / 초정밀 위치결정 스테이지		
B630	수루	B842	지비드		
B440	슈니베코리아	LB601	(주)침단		
B100	스가츠네코리아 주식회사	LB107	(주)초성전자		
B826	스마트레이	B368	카이트로닉스		
LB312	시보테크놀로지	B801	(주)코랄링크		
		B213	(주)코팩스코리아		
		B800	(주)크래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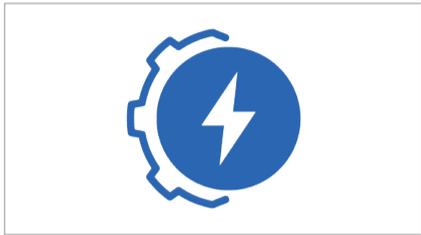
와이트리
산업용 무선 AIRWAVE



와이트리는 AGV · AMR 기반 무인 물류 시스템과 철도 · 선박 등 특수 환경을 아우르는 Wireless Automotive Solution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용 무선 'AIRWAVE'를 전시한다. 해당 솔루션은 Client, Router, AP, Mesh 기능을 통합한 All-in-one 구조로 듀얼 밴드와 Wi-Fi 6 기반 고속 통신을 지원해 이동형 산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구현한다.

부스 NO.C412 witree.co.kr

쓰리뷰
Machine365.Ai



쓰리뷰는 AI · IoT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 설비 모니터링 솔루션 'Machine365.Ai'를 선보인다. 해당 솔루션은 전기, 생산 수량, PLC 등 생산 설비 데이터를 수집해 설비와 전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알림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돼 피크 관리, 전력 사용 품질 관리,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하다.

부스 NO.C618 www.e3view.com

세이지
세이지 비전



세이지는 산업용 AI 기반 머신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현장 검사 자동화 솔루션 '세이지 비전'을 선보인다. 해당 솔루션은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외관 및 공정 결함을 자동 탐지하며 이차전지, PCB, 디스플레이, 식음료, 제약 바이오,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제한된 학습 데이터만으로도 활용 가능한 Anomaly Detection 기능을 통해 초기 도입 부담을 낮추도록 설계됐다.

부스 NO.C248 www.saige.ai

미르
LINCON(Linear Conveyor)



미르는 리니어 모터 기반 이송 시스템을 기존 컨베이어 라인에 접목한 차세대 스마트 이송 솔루션 'LINCON'을 선보인다. 해당 솔루션은 리니어 모터와 벨트 · 롤러 컨베이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공정 간 병목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인라인 상에서 별도 로봇 없이 공정 수행이 가능해 이동 · 대기 · 픽애플레이스 시간을 단축하며 기존 대비 최대 5배 이상의 생산 속도 향상을 구현한다.

부스 NO.C606 mirkr.co.kr

링크제니시스
EQlizerBOX



링크제니시스는 Legacy 및 일반 장비의 화면을 인식 · 제어하는 자동화 솔루션 'EQlizerBOX'를 선보인다. 해당 솔루션은 카메라 기반 화면 인식과 이미지 · OCR 인식, RPA 기능을 통해 오퍼레이터 업무를 자동화하도록 설계됐다. 현장 요구에 맞춰 모니터링부터 제어 · RPA까지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며 장비 화면을 원격 제어하거나 다수 장비를 원격지에서 자동 운영할 수 있다.

부스 NO.C700 www.linkgenesis.co.kr

엣지크로스
MachineGPT



엣지크로스는 기계 · 장비 데이터를 학습해 설비 상태를 판단하는 산업용 AI Agent 'MachineGPT'를 선보인다. 해당 솔루션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원인 분석부터 해결 방법까지 즉시 안내해 AS · CS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숙련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시로 내재화해 인력 이탈 리스크를 줄이고 설비 다운타임과 운영 비용 개선을 지원한다.

부스 NO.C536~C537 www.edgecross.ai

자이숨
X-SCADA AI



자이숨은 제조 산업의 지능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현장 통합 관제 플랫폼 'X-SCADA AI'를 선보인다. 해당 솔루션은 드래그 앤 드롭 기반 UI로 비전문가도 손쉽게 프로젝트 구성이 가능하며 별도 미들웨어 없이 NLPR · OCR · Yolo 등 AI 비전을 구현하도록 설계됐다. MES · ERP 및 다양한 장치와의 고속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데이터 시각화와 실시간 제어가 필요한 산업 현장에 적용된다.

부스 NO.C430 www.xisom.com

비투에스
CIS IV 카메라, 고해상도 AF



비투에스는 맞춤형 머신비전 하드웨어 기반으로 CIS IV 카메라와 고해상도 AF 솔루션을 선보인다. VIENEX IV CIS는 촬상 센서, 로드렌즈, 광원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바 타입 라인스캔 이미징 모듈로 선명한 이미지와 ±5mm 깊은 심도 촬영을 지원한다. Object와 이미지 센서 간 거리를 동일하게 유지해 왜곡 없는 균일한 이미지 획득이 가능하다.

부스 NO.C742 www.b2s.kr

유엔디
6축 교육용 플랫폼



유엔디는 로봇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산업 공정을 축소 · 재구성한 6축 교육용 플랫폼을 선보인다. 해당 시스템은 컨베이어 기반 6축 산업용 로봇 공정을 교육 목적에 맞게 구성해 실습 중심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로봇 제어, 센서 연동, 비전 인식, 공정 시나리오 구성까지 단계별 교육을 지원해 산업 로봇 실무 이해도와 시스템 설계 역량 향상을 돕는다.

부스 NO.C114 www.magbot.kr

에스엠인스트루먼트
BATCAM 2S



에스엠인스트루먼트는 휴대형 초음파 음향카메라 'BATCAM 2S'를 선보인다. 해당 솔루션은 112개 고감도 마이크로폰을 통해 가스 · 공기 누출, 부분 방전, 설비 이상 소음을 감지하도록 설계됐다. 보이지 않는 위험 신호를 영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 · 관리와 보고서 및 이력 관리 기능을 지원한다.

부스 NO.C602 smins.co.kr

젝스컴퍼니
JECS-1400GB



젝스컴퍼니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기반의 엣지 AI 팬리스 PC 'JECS-1400GB'를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CPU · GPU · NPU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적용해 엣지 AI 추론과 영상 분석에 최적화됐다. 최대 4개 디스플레이 출력과 3개 LAN, RS-232/485 포트를 지원해 산업 장비와의 호환성을 강화했으며 확장성을 갖춘 산업용 컴퓨팅 환경을 제공한다.

부스 NO.C939 jecs.co.kr

어드밴텍케이알
NVIDIA Jetson Thor MIC-743-AT



어드밴텍케이알은 NVIDIA Jetson Thor 프로세서를 탑재한 산업용 엣지 AI 컴퓨터 'MIC-743-AT'를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최대 2,070 TFLOPS(FP4) 성능과 128GB 메모리, 100GbE 네트워크를 지원해 엣지 환경에서 LLM · VLM 추론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서버급 AI 퍼포먼스를 엣지 단에서 구현하며 휴머노이드 로봇과 중장비 산업 적용에 최적화됐다.

부스 NO.C300 www.advantech.com



EXHIBITOR LIST 참가업체 리스트

부스 번호	업체명	부스 번호	업체명
C918	건흥전기(주)	C224	(주)엠투아이코퍼레이션
C533	국성인터내셔널(주)	C536	주식회사 엡지크로스
C932	(주)다온오토메이션	C336	(주)여의시스템
C834	다임리서치 주식회사	C108	(주)오픈컨트롤
C951	주식회사 더블유이엔지	C236	와고코리아
C240	(주)디피아엔	C915	(주)와이즈콘
C406	딩스크리아 주식회사	C412	(주)와이트리
C513	(주)랩투마켓	C360	(주)원프래딕트
C460	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리아	C520	웨다
C948	루첸코리아	C252	위드로봇(주)
C700	(주)링크제네시스	C716	(주)위존
C740	(주)마로로봇테크	C732	(주)유디엠텍
C524	(주)마이링크	C114	(주)유엔디 Magbot Platform
C860	마카나릭스	LB513	유엔산업개발(주) 한국투자진흥사무소
C312	(주)맥파이온	C949	주식회사 이노팩토리
C212	메크마인드로보틱스유한회사	LB510	이오문화사
C606	주식회사 미르	C826	인이지
C240	(주)버투젯	C430	(주)자이솔
LB502	베카맥스 그룹	C324	주식회사 제우스
LB503	베트남 싱가포르공단	C824	제이와이테크코리아
C522	브라토(주)	C939	젝스컴퍼니 주식회사
C613	브이엠에스 솔루션스	C945	중첸전자기술(주)
C530	비엔에프테크놀로지(주)	C916	(주)지경솔루텍
C627	비전트로(주)	C707	주식회사 지남소프트
C742	주식회사 비투에스	C104	(주)제디언시스템
C540	(주)삼정오토메이션	C120	케이씨인더스트리얼
C840	서람산업에스알아이 주식회사	C500	코그넥스 코리아
C348	(주)서보스타	C510	(주)코라스로보틱스
C400	유한책임회사 세봉	C100	(주)코어이미징
C734	주식회사 세솔	C402	(주)피르바코리아
C625	세우산전(주)	C612	주식회사 크레이텍
C248	세이지(주)	C802	카엔스코리아(주)
C750	슈니더 일렉트릭	C413	(주)타보스
C724	슈퍼메이아이	LB505	(주)테크월드
C260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C630	주식회사 트론
C424	스토브리코리아	C960	파나소닉 디바이스 세일즈 코리아(주)
C943	(주)스팩스테크	LB500	프리그로우
C560	(주)사이몬	C909	피닉스컨택트
C618	(주)쓰리뷰	C418	한국엔드레스하우저
C200	주식회사 씨메스	C800	한국케이엔에스(주)
LB506	아이씨엔 미래기술센터	C550	한솔PNS
C941	(주)아이엠티	C600	힐서코리아 주식회사
C708	(주)알씨케이	LB514	Bejagar Group
C880	알에스오토메이션(주)	C831	CC-Link협회
C527	(주)알티엠	C832	DEGSON TECHNOLOGY CO.,LTD.
C300	어드벤처케이알(주)	LB508	Hannover Milano Fairs Shanghai Ltd.
C229	에스씨에이	C711	INNODISK CORPORATION
C946	주식회사 에스엠디코리아	C704	IFLUSMOBOT
C602	(주)에스엔스트루먼트	C836	Just Motion Control
C541	에스티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C619	(주)KLT
C816	(주)에스피시스템스	C624	KSTEC
C936	주식회사에스파엠인스트루먼트코리아	C900	Multway Robotics Korea Co., Ltd.
C824	에이디링크 테크놀로지	C837	Ningbo NBVO Seiko Bearing Co.,Ltd.
C124	에이수스	C320	PRECISION MOTION INDUSTRIES, INC.
C808	에임시스템 주식회사	C919	SEER ROBOTICS
C531	(주)엑스알리더	C921	SHANGHAI GKONCY TRADING CO.,LTD.
C280	엘에스일렉트릭(주)	LB507	SHENZHEN ROBOTICS ASSOCIATION
C930	엘코오토메이션코리아(유)	C920	SHENZHEN INTELLIGENT TECHNOLOGY CO., LTD
C816	엘아이큐브솔루션		

산업자동화의 절대 기준, 사이몬

CIMON

BOOTH **C560**

CIMON AI 아키텍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가속 하다

시로 쉬워진 설계·작화·코딩, 엔지니어링의 혁신을 사이몬에서 경험하세요!

- HI-SPEED PLC
- PREMIUM HMI
- WEB SCADA
- INDUSTRIAL MONITOR & BOX PC
- INDUSTRIAL COMPUTING

산업 운영의 미래,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함께 시작하세요!

부스 위치: C460

Physical AI Powered by YOI

다크팩토리를 가능하게 하는 엔진, Physical AI 그 엔진에 힘을 더하는 기업, 여의시스템입니다

C336

비케이인스트루먼트

분광학 측정 장비



비케이인스트루먼트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십여 개 이상의 분광 장비 제작사의 장비를 판매해 온 국내 독점 대리점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RESONON의 초분광 이미징 시스템은 근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대를 수백 개의 채널(밴드)로 분할 및 촬영하여 물체의 특징적인 반사 스펙트럼(Reflectance Spectra) 정보를 감지하고 저장한다. 초분광 이미징 시스템은 기존 RGB 카메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며,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부스 NO.D331 www.bkinstruments.co.kr

티엑스알로보틱스

물류 로봇틱스 솔루션



티엑스알로보틱스(TXR Robotics)는 물류 자동화와 산업·재난 대응 로봇을 아우르는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솔루션은 기획·설계·제작·구축·운영까지 전 공정을 책임지는 물류 자동화 턴키 솔루션으로, 휠스터·싱글레이더·셀루베이어를 중심으로 물류 현장의 병목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대량 물동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현장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모듈형 설계를 적용했으며, 자동화 전 공정은 단일 플랫폼에서 유기적으로 관리되어 운영 효율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부스 NO.D408 www.txr.kr/ko/

아세테크

물류 자동화 솔루션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물류 자동화 기업 아세테크는 물류 컨설팅부터 최첨단 하드웨어 구축, 자체 개발 WMS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물류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계 1위의 큐브형 자동 창고 시스템인 '오토스토어'는 기존 선반 방식 대비 최대 4배 이상의 공간 효율을 실현하는 초고밀도 적재 솔루션이다. 고속 로봇을 활용한 24시간 무중단 피킹 시스템으로 운영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확장성이 뛰어나 운영 중에도 설비 증설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부스 NO.D712 asetec.co.kr

데이터랩스

제조 데이터 분석 솔루션



데이터랩스는 50년 이상 글로벌 산업에서 검증된 Minitab을 기반으로, 스마트팩토리 시대에 맞춘 데이터 기반 품질 개선과 AI 분석 자동화를 선도하는 전문 기업이다.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통계 교육부터 머신러닝 예측, 맞춤형 분석 시스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Minitab 솔루션 센터는 데이터 수집부터 시각화, 통계 분석, 협업, 보고서 작성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제조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며, AI 기반 분석까지 지원해 스마트공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부스 NO.LB404 www.datalabs.co.kr

디엠테크솔루션

스마트 제조 플랫폼



디엠테크솔루션은 경영-생산-품질-설비가 모두 같은 데이터를 보며 하루 단위의 실행 경영이 가능하도록, GW-ERP-MES-POP-EDG-AI를 하나의 데이터 플로우로 묶어, 제조 운영 전 과정이 단일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대표 솔루션인 Live MES는 제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생산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조 관리 솔루션이다. ERP-MES 통합형 시스템, 품질·설비 SPC관리 제공, 다양한 KPI 지표 표준화 및 관리, 액셀 업로드, 다운로드 편의성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부스 NO.D363 www.dmtk.co.kr

카본식스

로봇 지능 제조 자동화



카본식스는 제조업 특화 로봇 인공지능 개발사로 2024년 설립됐다. 산업 현장의 섬세한 수작업을 자동화하고, 변화하는 생산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그마키트는 로봇AI 모방 학습에 기반한 툴킷 형태의 솔루션으로, AI 전문 지식이나 별도의 장비 없이 누구나 제조 공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특화 인공지능, 섬세한 작업에 특화된 로봇그리퍼, 직관적 조작가능한 티칭툴, 센서 모듈로 구성되어 불가능했던 작업 영역의 완전한 로봇 자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부스 NO.D608 www.carbon6robotics.com/ko

미라콤아이앤씨

디지털 제조 혁신



미라콤아이앤씨는 제조 현장의 진단, 컨설팅부터 MES, ERP 구축 및 운영, 에너지 관리와 물류 자동화, 제조 현장의 AX에 이르기까지 제조 혁신의 전 과정을 설계한다. 통합 생산관리 솔루션 Nexplant MESplus는 21개 업종 400여 기업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통합 생산관리 솔루션으로, 제조 실행, 품질 및 수율 관리, 데이터 시각화 등 500개 이상의 기능을 제조 현장의 수준과 필요에 맞게 모듈 단위로 구축할 수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제조 생산성 극대화 및 품질 개선을 지원한다.

부스 NO.D232 miracom-inc.com/main.do

원익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자동화



원익로보틱스는 AMMR/AMR과 로봇 핸드(Allegro Hand)를 통해 산업 현장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WR-AMMR05-3F는 메카닉 휠 기반으로 전후좌우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좁고 복잡한 현장에서도 막힘 없이 유연한 주행이 가능한 자율 이동 조작 로봇이다. 특히 ±1mm 수준의 도킹 성능을 갖추어, 정교한 위치 제어가 요구되는 공정에 적합하다. 상부에는 6축 다관절 협동로봇이 탑재되어 사람의 팔처럼 유연하고 섬세한 작업 수행이 가능하며, 비전 시 기술을 통해 주변 대상을 스스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검출한다.

부스 NO.D452 wonikrobotics.com

아이지피넷

생산 관리 스케줄링



아이지피넷은 금형·부품·양산 등 다양한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공정·생산 관리 스케줄링 시스템 'eSmart-DX'를 주력으로 제공한다. eSmart-DX는 수주 관리·실적 관리·진척 관리·계획관리를 한 흐름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설계됐다. 수주 등록만으로 자동 스케줄링을 수행해 납기 대응과 생산 계획 수립을 돕고, 현장 운영 데이터의 가시성을 높여 리드타임 단축과 관리 효율화를 지원한다. IoT 연동 등 고객 요구에 맞춘 적용도 지원한다.

부스 NO.D611 www.igpnet.co.kr

피아이어

AI 비전 검사



피아이어(PIE)는 AI와 비전 기술,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으로 제조 혁신·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AI 비전 검사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개발부터 하드웨어 구현까지 아우르는 통합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며, 적용 산업을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반도체 등으로 확장해 왔다. 대표 솔루션은 제조라인의 결함/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처리·AI 알고리즘을 적용해 검사 정확도와 공정 품질 관리를 높이는 'AI 비전 검사'와 데이터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다.

부스 NO.D500 <https://www.piegroun.co.kr/main>

로보티즈

산업용 로봇



로봇 전문 기업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 '게미'와 로봇 관절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에서 최근에는 촉각 센서 기반 로봇 핸드까지 분야를 확장했다. 신형 로봇 핸드 'HX5-D20'은 와이어 구동 대신 관절형 초소형 액추에이터(XM335)를 넣은 능동 구동 구조와 손끝 촉각 센서, 전류 기반 토크·순응(Compliance) 제어로 시야 사각지대에서도 정밀 파지·작업을 노린다. 다이나믹셀-Y는 멀티턴 앵슬루트 엔코더와 전자식 브레이크, 중공축 설계로 휴머노이드 관절 안전성과 제어 정밀도를 강화한다.

부스 NO.D560 www.robotis.com

티로보틱스

진공 이송 로봇



티로보틱스는 2004년 설립된 진공 이송 로봇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진공 로봇과 이송 시스템을 개발·양산해 글로벌 파트너에 공급해 왔다. 진공 로봇(대형/소형)과 진공 이송 시스템, 반도체용 클러스터툴·EFEM 등 로봇 시스템, 자동화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했고, 비전 인식·반복 학습을 결합한 자율주행로봇(AMR)과 지능화 소프트웨어 R&D도 병행한다.

부스 NO.D428 www.t-robotics.net

HALL D

3F



EXHIBITOR LIST 참가업체 리스트

부스 번호	업체명	부스 번호	업체명	부스 번호	업체명
D338	(주)경화상사	D302	주식회사 아틀로봇코리아	D464	파나소닉코리아(주)
D723	고성엔지니어링	D371	임바플렉스코리아 유휴회사	LB419	페어이노 협동로봇(한국총판 AMICUS)
D271	나라드라이브 주식회사	D234	에스피씨테크놀로지	D224	(주)포도
LB404	(주)데이터램스	D452	(주)원익로보틱스	LB410	플라리스쓰리디
D211	동도테크(주)	D562	유니티	D500	(주)피아이이
D606	(주)두리코씨엔티	LB427	이에이차케이	LB402	피에스엠피(주)
LB400	두플	D200	(주)인터롤코퍼레이션	D225	주식회사 피엠에프
D363	(주)디엠테크솔루션	D743	제이씨 테크놀로지 [포지탈] [메가트론]	D216	(주)한국체인모터
D616	(주)로거테크	D208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D150	한국화낙(주)
D560	(주)로보티즈	D710	(주)지에스아이 테크코리아	D120	현대글로벌비스
D252	주식회사 로이스	D234	짐머그룹	D540	현대무빅스
LB406	모벤시스	D747	충북대학교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D110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
D605	모터센스	D400	카덱스코리아	D170	AiTEN Robotics
D232	주식회사 미라콤아이앤씨	D608	카본식스	LB408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
LB414	주식회사 미켈로로보틱스	D336	(주)켄탐스	D105	GEEKPLUS
D615	브이넷코리아(주)	D273	(주)컨포트랩	D520	HIKROBOT
D331	(주)비케이인스트루먼트	D613	케스코물산(주)	D711	JAKA ROBOTICS
D604	셀비관리시스템 점프	D600	(주)코니웰	D602	Premio Inc.
D403	(주)센서랩	D466	코스맥	D328	Standard Robots Co., Ltd
D320	아나로그디바이스	D348	토마스 그룹	D603	SUNCHU TECHNOLOGY
D712	(주)아세테크	LB424	(주)트라스트 에이엔씨	LB418	SWCC JAPAN/TOTOKU
D368	아이닉스 & SVLEC Co.,LTD	D316	트로악스세이프티시스템즈 주식회사	D300	VisionNav Robotics
D360	아이에이코리아	D428	(주)티로보틱스		
D611	(주)아이지피넷	D408	티엑스알로보틱스		

D홀 Booth #D400

kardex

카덱스코리아

자동차/반도체/전기/전자
제조 부품을 위한 자동창고

경량물부터 중량물·이형 자재 보관은 창고자동화를 가장 잘 아는 카덱스코리아와 상의하세요!

부스 #D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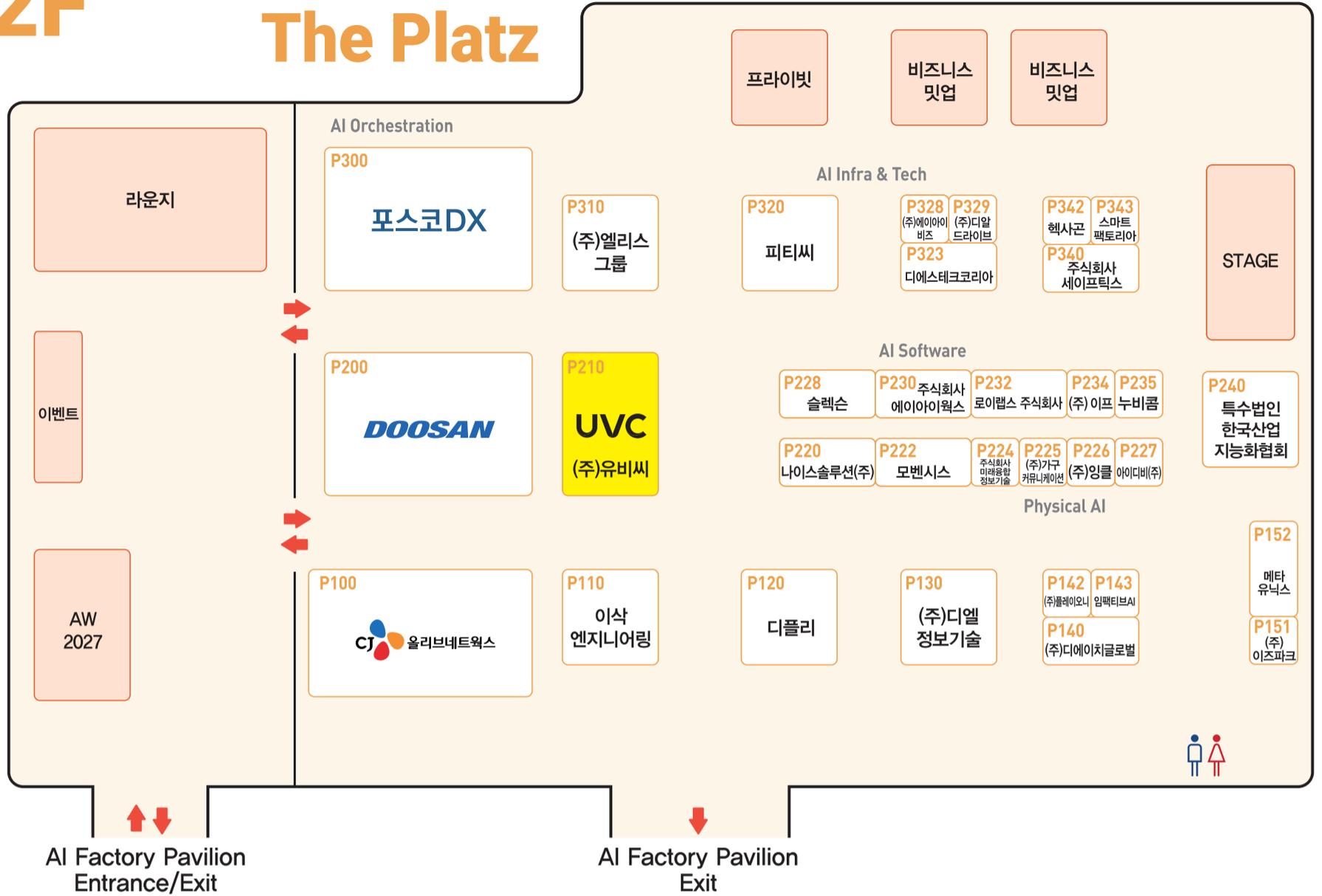
MIRACOM

AX로 판단하고 RX로 실행하는
Autonomous Factory

MES 기반 데이터로 시가 판단하고,
로봇이 실행하는 자율제조

2F

The Platz



EXHIBITOR LIST 참가업체 리스트

부스 번호	업체명	부스 번호	업체명	부스 번호	업체명	부스 번호	업체명	부스 번호	업체명
P225	(주)가구커뮤니케이션	P140	(주)디에이치글로벌	P224	주식회사 미래융합정보기술	P328	(주)에이아이비즈	P143	임팩티브시
P220	나이스솔루션(주)	P130	(주)디엘정보기술	P320	(주)브릿지웨어	P230	주식회사 에이아이웍스	P226	(주)잉클
P235	누비콤	P120	디플리	P340	주식회사 세이프티스	P310	(주)엘리스그룹	P240	특수법인 한국산업지능화협회
P200	(주)두산	P232	로이랩스 주식회사	P343	스마트팩토리아	P210	(주)유비씨	P300	포스코DX
P329	(주)디알트라이브	P152	메타유닉스	P228	슬렉스	P110	이삭엔지니어링	P142	(주)플레이오니
P320	(주)디모아	P320	(주)모두솔루션	P100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P151	(주)이즈파크	P320	피티씨
P323	디에스테크코리아	P222	모벤시스	P227	아이디비(주)	P234	(주)이프	P342	헥사곤



AI 도입을 넘어 운영 체계를 재설계하는 제조 AX 솔루션
 데이터 통합-분석-의사결정-관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OCTOPUS

P210 | 유비씨(UVC)에서 만나보세요



OCTOPUS Solution

제조 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AI 제조 솔루션



2026 AI 자율제조혁신 컨퍼런스 – Track A : 산업 AI

■ 일 시 : 3월 4일(수) 10:20 - 16:1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07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0:20-11:00	AI 도입을 넘어 자율제조로 가는 3단계 로드맵	이현동 슈퍼브에이아이 부사장
11:00-11:30	Physical AI 시대에 대응하는 Edge Computing 구축 전략	최수혁 어드벤처케이알(주) 부사장
11:30-12:00	데이터 기반 AI시대의 제조업 미래	김형규 LS ELECTRIC 매니저
Lunch time		
13:30-14:10	AI가 움직이는 공장, AI Native Factory	성민석 원프레딕트 부사장
14:10-14:50	Industrial Autonomy를 위한 자율 운전 솔루션	조이연 한국요꼬가와전기 부장
14:50-15:30	제조 AX 솔루션	조예창 유비씨 파트너
15:30-16:10	제조 현장의 디지털 혁신	박현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상무

2026 AI 자율제조혁신 컨퍼런스 – Track B : 인텔리전트 로보틱스

■ 일 시 : 3월 4일(수) 10:30 - 16:1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08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0:30-11:10	Robotics 기반 제조 물류 자동화에서 AI 자율운영으로의 진화	김동민 미라콤아이앤씨 프로
11:10-11:50	The Eye of Dark Factory: 3D 공간 지능과 Physical AI가 실현하는 제조 혁신	조영범 픽업코리아 팀장
Lunch time		
13:30-14:10	S/W 기반 모션 제어가 여는 AX의 미래	김기훈 모벤시스 대표이사
14:10-14:50	Safety-Enforced AI for Human-Robot Collaboration - 8 Key Use Cases	김휘연 세이프티스 CSO
14:50-15:30	제조 현장과 물류 현장을 위한 스마트 자동화 솔루션	정다운 주식회사 에이디로보틱스 사업부장
15:30-16:10	물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자율주행 로봇과 Physical AI가 제시하는 단계적 자동화 해법	김재성 트위니 로봇사업본부장

2026 시머신비전 기술세미나

■ 일 시 : 3월 4일(수) 10:00 ~ 15:2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17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0:00-10:50	중국 기계 비전 산업 시장 보고서	Ms Yang Yi / Vice Chairman of China [Machine Vision Industry Union (CMVU)]
11:00-11:50	SMIR Imaging의 진화: 기술, 솔루션, 그리고 차세대 로드맵	노윤성 부장 [㈜앤비전]
13:30-14:20	AI 비전 프로젝트, 왜 80%가 POC 에서 실패하는가? '성능은 최대로, 비용은 최소화'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전략	홍현진 코어기술연구팀장 [㈜라온피플]
14:30-15:20	100Gbps COF 기반 차세대 머신비전: 초대면적, 초고분해능, 초고속 이미징과 시 멀티모드 응용	권혁훈 이사/광영상 본부장 [㈜뷰릭스]

■ 일 시 : 3월 5일(목) 10:00 ~ 15:2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17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0:00-10:50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대, 3차원 비전은 왜 필요한가	조덕현 CTO [㈜클레로로보틱스]
11:00-11:50	공간은 줄이고, 열은 남기지 않는 차세대 Interface SerDes	김학길 차장 [㈜앤비전]
13:30-14:20	LUCID의 최신 3D ToF 카메라 기술의 이해와 적용 사례	백호 대표 [LUCID Vision Labs Korea]
14:30-15:20	2.5D와 3D 기술을 통한 생산 효율성 개선	오인태 Mega Phase 한국 공식 유통 파트너

2026 AI 자율제조혁신 컨퍼런스 – Track A : 디지털 퀄리티

■ 일 시 : 3월 5일(목) 10:30 - 16:1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07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0:30-11:10	Smart Quality Trends 및 제조 현장 적용 사례	최종문 (주)오토닉스 I&S사업본부 팀장
11:10-11:50	머신 비전의 미래: OneVision으로 구현하는 AI머신 비전	김창모 코그넥스 코리아 차장
Lunch time		
13:30-14:10	대면적 · 협소공간 검사를 위한 CIS 카메라: Application 맞춤 CIS 카메라 & 조명 솔루션	김승엽 바이렉스 대표
14:10-14:50	Physical AI, AI Vision의 완성, AI Platform과 Unsupervised Learning을 중심으로	성민수 아이벡스 대표
14:50-15:30	AI 자율제조를 위한 통신 케이블 표준 및 테스트	문건호 플루크 네트워크 이사
15:30-16:10	AI 자율제조 시대, Microsoft 365 Copilot이 만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권민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파트너 (에스핀테크놀로지) 파트너

2026 AI 자율제조혁신 컨퍼런스 – Track B : SDF

■ 일 시 : 3월 5일(목) 10:30 - 16:1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08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0:30-11:10	제조 데이터 분석 그리고 AI가 지원하는 스마트한 성공 전략	민경현 (주)데이터랩스 부장
11:10-11:50	SDA(Software Defined Automation)기술 기반 AI 및 로보틱스를 통한 자율 제조 실현	권오혁 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리아 소프트웨어 & 제어 사업부 본부장
Lunch time		
13:30-14:10	Software Defined Universal Automation	김건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비즈니스 오피 매니저
14:10-14:50	3D 프린팅 맞춤형 툴링의 디지털 전환과 현장 도입 전략	최승호 스트라타시스코리아 차장
14:50-15:30	SDF를 위한 3D UNIV+RSES 전략: Connecting Data, AI Intelligence, and Execution	목종수 다쏘시스템코리아 인더스트리 비즈니스 컨설턴트
15:30-16:10	산업 지능 인프라로 진화하는 Physical AI	백훈 엣지크로스 CEO

2026 AI 자율제조혁신 컨퍼런스 – Track A : 2026 디지털ESG솔루션데이

■ 일 시 : 3월 6일(금) 10:30 - 15:3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07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0:30-11:10	OT Cybersecurity for Digital Transformation	신상용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기술 영업 컨설턴트
11:10-11:50	AX/DX 기반 GX 구현 전략 -디지털ESG패스포트를 중심으로-	강명구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사무총장
Lunch time		
13:30-14:10	제조 미래, AX와 GX의 결합	정희태 아이핌 대표
14:10-14:50	2026 공급망관리 글로벌 규제법규와 기업의 대응해법 노하우(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용 (주)한켄컨설팅그룹 대표이사
14:50-15:30	국가 NDC 달성을 '앞당기는' 기업 실행의 첫 단계: 외부사업등록과 감축실적 수익화	정재훈 젠엑시스 본부장

2026 AI 자율제조혁신 컨퍼런스 – Track B : 스마트물류

■ 일 시 : 3월 6일(금) 10:30 - 16:1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08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0:30-11:10	Software-Defined Factory to Warehouse: Rethinking Execution Through Software	최용덕 니어솔루션 CBO
11:10-11:50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빠른 스마트 물류 전환	송재영 카텍스코리아 대표이사
Lunch time		
13:30-14:10	AI 물류 전략: 변화하는 사업 환경과 미래 수요에 따른 권역 · 노선 · 업무(Job) 최적화	이정훈 위트모빌리티 COO
14:10-14:50	지원하는 시를 넘어, 업무를 수행하는 AI로의 전환	정영권 (주)디비 CSO
14:50-15:30	AI 자율제조 시대, 스마트물류의 미래와 혁신 전략	송윤근 ㈜답파인 수석 매니저
15:30-16:10	물류 자율주행로봇(AMR) 5년 노하우: 물류를 아는 로봇	임종근 파스트 IT개발본부장

※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주최측 및 참가기업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periencing AI Native Fa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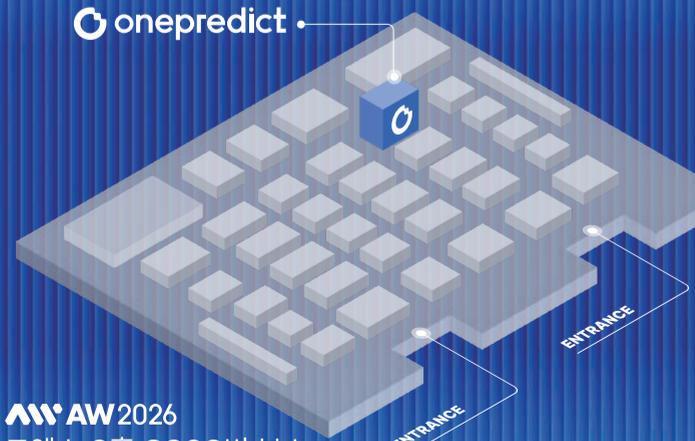
onepredict.ai

Experiencing AI Native Factory: 원프레딕트 부스에 초대합니다

2026.03.04 (Wed) — 03.06 (Fri)
Coex, Seoul





AW2026
코엑스 C홀 C360번 부스



AW 2027

March, 2027, Coex, Seoul

AW 2027 1st General Application OPEN!

AW 2027 1차 일반신청 OPEN!



일반 신청 기간 ————— 2026. 3. 4 - 3. 6
General Application Period

신청 방법 —————	온 라 인 : AW 2027 온라인 신청서 제출
Application Method	Online : Submit Online AW 2027 Application
	오프라인 : 코엑스 2층 AW 2027 Rebooking Center
	방문하여 지류 신청서 제출
	Offline : Visit Coex AW 2027 Rebooking Center 2F
	and submit application form

문의 | T 02-6000-8151 / 8195 E sfawcoex@gmail.com H www.automationworld.co.kr

AW Vietnam 2026



참가 신청 기간 ————— 2026. 8. 31
Application Period

신청 방법 —————	AW VIETNAM 온라인 신청서 제출
Application Method	AW VIETNAM Online Application Submission

문의 | T 02-6000-8118 / 8127 / 8092 E sfawviet@gmail.com H www.automationworld.net.vn

AW 2026 – IR피칭

■ 일 시 : 3월 4일(수) 13:50 ~ 15:40 ■ 장 소 : The PLATZ홀 내 AI Factory Stage (2F)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3:50-14:00	IR피칭 프로그램 소개 및 개최	한국산업지능화협회
14:00-14:10	Safety Intelligence for Cobot and Humanoid	세이프티스 신현섭 대표
14:10-14:20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 탄소 중립을 위한 글로벌 MUST-HAVE 솔루션	주식회사 이비타고 전병용 대표
14:20-14:30	피지컬 AI 기반 설비 자산 무결성 플랫폼	시그널크래프트 김선범 대표
14:30-14:40	모빌리티용 Physical AI 기반 상황 인지, 판단 솔루션	Blue Apex 김병건 대표
14:40-14:50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AI 실행 레이어	서버키트 김태훈 대표
14:50-15:00	Agent 중심의 AI End to End 파이프라인	에이아이웍스 윤석원 대표
15:00-15:10	맞춤가구 설계 기반 AI 공간 맞춤형 원스톱 플랫폼	(주)가구커뮤니케이션 김태성 대표
15:10-15:20	No-Coding 기반의 액추에이터 시뮬레이션 플랫폼(액추에이터 OS)	모컨 채상민 대표
15:20-15:30	Physical AI 기반 산업·시설 안전 플랫폼	에스비이로보틱스 주식회사 이진기 대표
15:30-15:40	폐회	

AI 팩토리 세미나

■ 일 시 : 3월 5일(목) 10:20 ~ 15:20 ■ 장 소 : The PLATZ홀 내 AI Factory Stage (2F)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제조 AI Core & Applied Day (AI HW/SW)		
10:20-10:30	세미나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한국산업지능화협회
10:30-10:50	AI로 혁신하는 제조업운영과 데이터플랫폼의 현대화	Thingworx & Kepware(PTC코리아) 안재식 총괄책임
10:50-11:10	소프트웨어 공정혁신: Agentic AI로 구현하는 'SLEXN'의 지능형 SDLC 플랫폼	슬렉스 유승우 부사장
11:10-11:30	From data to action: Harnessing Agentic AI	(주)엘리스그룹 예기현 본부장
Break Time		
13:50-14:00	오후 프로그램 안내	한국산업지능화협회
14:00-14:20	AI 팩토리 관점에서 본 원재료 가격 AI 예측 활용 전략 및 사례	임팩트비시 유대원 이사
14:20-14:40	복합·고속 제조 환경에서의 AI Factory 구현 사례와 Physical AI 적용 전략	DSTEK 황규영 대표
14:40-15:00	Physical AI 시대, 제조산업 고품질 데이터 수집과 AI 분석 자동화 혁신의 시작점	누비콤 김기룡 부장
15:00-15:20	현장 중심의 지능형 예지 플랫폼	아이디비 주식회사 민보경 대표

■ 일 시 : 3월 6일(금) 10:20 ~ 11:30 ■ 장 소 : The PLATZ홀 내 AI Factory Stage (2F)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제조 AI Core & Applied Day (AI HW/SW)		
10:20-10:30	세미나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한국산업지능화협회
10:30-10:50	Physical AI 시대, 기계의 '귀'로 공장 자동화를 완성하다 - Sound AI 기반 품질검사 혁신	디플리 이수지 대표
10:50-11:10	공정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제조혁신	에이아이비즈 하승재 대표
11:10-11:30	파편화된 설비 데이터를 시의 자산으로: KEPware OPC Server 기반 AI Factory 통합 연결 전략	브릿지웨어 이영주 이사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구현 기술 세미나

■ 일 시 : 3월 4일(수) 13:00 ~ 17:0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27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3:30-14:10	AI 기반의 고신뢰 제조 디지털 트윈 기술 및 현장 적용 사례	이은서 책임 지능제조융합연구실 ETRI
14:10-14:20	Coffee Break	
14:20-15:00	엣지러닝 AI 기술로 구현하는 공장자동화의 미래	코그넥스 코리아
15:00-15:10	Coffee Break	
15:10-15:45	데이터 부족 없는 스마트팩토리: 생성형 AI 기반의 데이터 증강 및 고효율 이상 탐지 전략	최중원 교수 비주얼 인텔리전스 연구실 중앙대학교
15:45-15:55	Coffee Break	
15:55-16:30	Edge Controller-AI Vision-Mechatronics 융합을 통한 미래형 스마트팩토리 지능화 솔루션	사재훈 이사 Mechatronic Solution 리더 B&R 코리아
16:30-17:00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조현보 대표 알세미

2026 산업지능화 컨퍼런스 – 'AI-Native 제조 산업의 미래'

■ 일 시 : 3월 5일(목) 09:50 ~ 16:00 ■ 장 소 : 컨퍼런스룸 드홀 (3F)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09:50-10:00	개회사		
기조 세션			
Room E 2-4			
10:00-10:30	물류 산업에서의 DX와 AX 사례	현대글로벌비즈니스 양호석 상무	
10:30-11:00	AX 시대, Intelligent Factory로의 전환	포스코DX 윤석준 로봇자동화센터장	
11:00-11:30	유니티, 피지컬 AI를 가상에서 현장으로 연결하다.	유니티테크놀로지코리아 민경준 본부장	
11:30-12:00	Physical AI 기반 다크팩토리 구축	다임리서치 정영재 대표이사	
기술 세션			
시간	Room E 5	Room E 2-4	Room E 6
	Track A	Track B	Track C
	Agentic AI (에이전틱 AI)	Physical AI (피지컬 AI)	AI 제조 시스템
13:30-14:00	Why DutchBoy? 공정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산업용 AI 플랫폼	설명가능 AI(XAI) 기반 Physical AI가 만드는 자율 제조의 미래	스마트제조, 로봇물류자동화 방안 및 적용사례
	에이아이비즈 하승재 대표이사	(주)인이지 최재식 대표이사	(주)아스테크 김희석 전무
14:00-14:30	경계를 넘는 지능 (Borderless Intelligence) : 제조 AX의 시작,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공존	AI 엣지 컴퓨팅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피지컬 AI	자율제조의 시작점: 데이터 운영체제
	AVEVA / 오픈트렌트를 운영할 수석컨설턴트	에이디링크 테크놀로지 신준수 대표	원프래딕트 성민서 부사장
14:30-15:00	Agentic AI 시대의 제조: 단계별 추론 및 자율 실행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산업 AI의 다음 진화, 피지컬 AI로의 확장과 과제	AI 제조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기반 지능형 공장 운영 혁신 전략
	(주)두루 박정호 팀장	슈퍼브에이아이 이재민 사업본부장	(주)유비씨 조영환 파트장
15:00-15:30	다른 도메인에서의 합성데이터 도입 사례 및 산업지능 적용 가능성	피지컬 AI 상용화를 위한 강화학습의 핵심 역할 - 단계별 로봇 지능 기술	제조 현장 AI 활용으로 데이터 분석 및 문제 해결 생산성 향상
	젠젠에이아이 조호진 대표이사	플레이오니 연승호 팀장	(주)데이터터널 민경현 부장
15:30-16:00	럭키드로우 및 폐회		

2026 산업지능화 컨퍼런스 – 'AI-Native 제조 산업의 미래'

■ 일 시 : 3월 6일(금) 09:20 ~ 16:00 ■ 장 소 : 컨퍼런스룸 드홀 (3F)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09:20-09:30	축사		
기조 세션			
Room E 2-4			
09:30-10:00	AI로 여는 스마트 제조의 미래	델 테크놀로지스 이영민 전무	
10:00-10:30	AI 기반 비주얼 트윈을 통한 제조 혁신 전략	다쓰시스템 조현수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총괄 본부장	
10:30-11:00	에이전틱 AI가 주도하는 지능형 제품개발: 데이터로 연결되는 엔지니어링의 새로운 패러다임	피티씨코리아 지수민 본부장	
11:00-11:30	"공장을 운영하는 혁신적인 자산 라이프사이클 관리 GenAI"	한국IBM 박정선 사장	
11:30-12:00	미쓰비시전기가 지원하는 제조업의 DX/AX 전략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마루야마 아사미즈 그룹장	
기술 세션			
시간	Room E 5	Room E 2-4	Room E 6
	Track A	Track B	Track C
	Agentic AI (에이전틱 AI)	Physical AI (피지컬 AI)	AI 제조 시스템
13:30-14:00	제조 AX 상용화 전략: 에이전틱 AI로 구현하는 의사결정 자동화	Physical AI 기반 공정의 미래: from Chaos to Harmony	AAS 기반 온톨로지와 LLM 융합을 통한 제조 버티컬 AI 확장 전략
	(주)엘리스그룹 예기현 본부장	다임리서치 주식회사 이상욱 부사장	엠아이큐브솔루션 이정윤 책임
14:00-14:30	패션랩(Air-gap) 내에서 완성되는LLMOps: 기업 전용 올인원 온프레미스 플랫폼, Puleron AI	Vision-driven Physical AI로 구현하는 제조 공정 자동화	예측 AI가 만드는 생산성 혁명
	슬렉스 유승우 부사장	디에스테크코리아 황규영 글로벌CEO	임팩트비시 정두희 대표
14:30-15:00	산업용 AX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확보 전략 - 시계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의 역할 -	피지컬 AI의 시행착오 제로화: 가상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통합 기반의 고신뢰성 제조 시스템 구축 전략	자동화된 생산의 최첨단 특성 - AI 자동화가 의존하는 신뢰할 수 있는 OT 인텔리전스
	심플랫폼 임대근 대표이사	(주)윌케이 박수진 대표이사	AMDT / 오픈트렌트를 정진성 Channel Partner
15:00-15:30	AI 실행형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기업 AX 전략	AI 기반 기구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METHUS	글로벌 사례로 본 AI 제조 혁신: 핵심공의 디지털운영 전략
	주식회사 서버키트 김태훈 대표이사	아이디어오션 김중호 CEO	핵사곤 AI 김세환 프로
15:30-16:00	럭키드로우 및 폐회		

Track A : e4ds 피지컬AI 프론티어 2026

■ 일 시 : 3월 6일(금) 10:00 ~ 16:3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17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0:00-10:40	Opening Ceremony	
10:40-11:20	산업 현장에서의 피지컬 AI 적용 시사점	이순열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회장
11:20-12:00	1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AI 솔루션, 생성형 AI 구현 과업 지속가능성	마테오 마라바타, ST APAC AI 역량센터 리더
12:00-13:00	Lunch Break	
13:00-13:40	피지컬 AI 시장동향	배종민 e4ds news 편집국장
13:40-14:20	피지컬 AI 가치사슬과 대한민국의 전략	최홍섭 마음씨 대표이사
14:20-15:00	로봇 및 피지컬 AI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대응	김휘연 세이프티스 이사
15:00-15:10	Coffee Break	
15:10-15:50	제조업 자동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협동로봇 x 피지컬 AI	이내형 Dobot Robotics 대표이사
15:50-16:40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진짜 병목: 데이터 부족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서형주 카본시스 CTO

Track B : e4ds 피지컬AI 프론티어 2026

■ 일 시 : 3월 6일(금) 13:00 ~ 16:4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18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3:00-13:40	피지컬 AI를 위한 임베디드 반도체 솔루션	Texas Instruments
13:40-14:20	시뮬레이션 기반 웨어러블 슈트 강화학습, 온디바이스 사족로봇 사례로 살펴보는 피지컬AI의 현재와 미래	정영준 ETRI 본부장
14:20-15:00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개발 전략과 실무 팀	김민기 MDS테크 FAE
15:00-15:10	Coffee Break	
15:10-15:50	엣지 AI에서의 AI 추론, 경량화 모델 및 경량화 방법	조석영 노타 AI 매니저
15:50-16:40	피지컬 AI 시대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인터넥트 혁신	김재영 퀴라타스 반도체 상무이사

AW2026 콘퍼런스 '초지능' 제조현장을 위한 피지컬 AI

■ 일 시 : 3월 4일(수) 10:30 ~ 16:30 ■ 장 소 : 컨퍼런스룸(남) 318호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0:00-10:30	등록확인 및 입장안내	
10:30-11:00	2030 완전 자율제조	에스에프에이
11:00-11:30	Siemens Industrial AI: 초지능 제조혁신을 가속하는 피지컬 AI 전략	장덕진 부장 / 지멘스(주)
11:30-12:00	Scalable AI Factory: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공정 지능화 가속화	지승혁 시니어 매니저 / 보쉬렉스코리아
12:00-13:30	Lunch Break	
13:30-14:00	전력설비 지능화의 시작: AI 자율보호 플랫폼 CogniEn	이형규 Product Marketing Director / ABB
14:00-14:30	AAS 기반 온톨로지와 LLM 융합을 통한 제조 버티컬 AI 확장 전략	이정윤 책임 / 엠아이큐브솔루션
14:30-15:00	사물을 넘어 공간을 읽다 - 피지컬 AI와 라이다의 진화	정종규 이사 / 에스오에스랩
15:00-15:30	Coffee Break	
15:30-16:00	미국 유럽 생산거점 구축 기업을 위한 장비안전규정 체크포인트	박정재 과장 / Pilz Korea Ltd.
16:00-16:30	첨단산업 생산라인 자동화를 위한 고성능 소형 PLC	아이벡스 / 성민수 대표

※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주최측 및 참여기업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로보틱스 2026, “현장 도입 성과 증명하는 설계가 표준 될 것”

**통합된 운영과 안전 표준의 결합, 대세는 공정 수행 능력 입증
로봇 투자 기준 변화 예고, 생산성보다 ‘안정적 공정 유지’가 관건**

로봇 시장의 글로벌 동향이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증명하는 ‘검증 프로세스’로 변모하고 있다. 다양한 각장 행사장에서 동작 시연으로 기술력을 검증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뜻이다. 현시점에는 ▲도입 이후 정지 시간 ▲재가동 절차 ▲대상 품목 변경 대응 ▲유지보수 체계 등 총소유비용(TCO)을 결정하는 요소가 로봇의 핵심 가치가 됐다. 이에 따라 최근 로보틱스 프로젝트는 셋업 시간, 오류 처리 시간, 라인 밸런스 등 운영 지표를 우선 설정하며, 투자의 기준을 최고 처리량이 아닌 매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공정 수행 능력’에 두고 있다.

“병목 구간부터”...공정별 로보틱스 도입 전략

지난 2024년 산업용 로봇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인터랙트애널리시스(Interact Analysis)’에 따르면, 해당 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출하량은 약 50만 5,000대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며 매출 또한 5.8%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대규모 턴키(Turnkey)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생산 흐름의 병목 공정을 우선 공략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시뮬레이션을 수정하고 있다. 팔레타이징(Palletizing), 검사(Inspection), 공정 간 이송(Line-to-

Line Transfer), 인트라로지스틱스(Intralogistics) 등 개선 효과가 수치로 즉각 확인되는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자동화를 연결하는 모습이다.

이후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 효과가 확실시되면 그 다음 단계로 확산하며, 계약 방식 역시 운영 성과 측정과 예비 부품 체계 등 실무적 프로세스를 초기 논의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피지컬 AI, ‘단일 AI 모델’보다 ‘확실한 검증 루틴’으로

최근 로보틱스 분야 담론의 중심인 피지컬 AI(Physical AI) 또한 ‘단일 AI 모델’보다 ‘확실한 검증 루틴’을 지향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의 지능을 물리적 실체에 이식해 복잡한 변수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이다. 엔비디아(NVIDIA)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로봇 학습·추론용 시뮬레이션 플랫폼 ‘코스모스(Cosmos)’, 오픈 추론 시각·언어·행동(Vision-Language-Action, VLA) 모델 ‘엔비디아 아이작 그루트 N1.6(NVIDIA Isaac GR00T N1.6)’, 가상 검사장 ‘아이작 랩아레나(Isaac Lab-Arena)’, 통합 제어 엔진 ‘오스모(OSMO)’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현장의 관심은 모델 명칭이 아닌 실질적 검증 ‘프로세스’에 있다. 동일 조건에서의 결과 유지와 실패 원인 파악 가능 여부가 핵심이다.

엔비디아는 AI 모델 공유 플랫폼 업체 ‘허깅페이스(Hugging Face)’의 로봇 학습용 오픈소스 환경 ‘르로봇(LeRobot)’에 자사 기술을 통합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파트너사인 독일의 ‘프랑카로보틱스(Franka Robotics)’ 역시 ‘엔비디아 아이작 심(NVIDIA Isaac Sim)’ 기반 USD 파일을 제공하며 시뮬레이션 기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은 AI 적용 성공에 대해 교대, 조명 변화, 혼재물 등 극한의 환경에서 반복되는 운영 지속성으로 평가한다. 결국 피지컬 AI는 검증과 운영 체계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운영 패키지 도입과 안전 표준의 결합

결국 관건은 물류 로보틱스 운영 패키지 도입과 안전 표준의 결합이다. 창고 자동화 수요는 여전히 견고해, 장기적으로 연평균 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 현장은 취출(Picking)·분류(Sorting)·팔레타이징 등 공정형 자동화에 창고관리시스템(WMS)·창고제어시스템(WCS)이 결합된 설계를 지향한다. 가격 체계 또한 운영 패키지 단위로 책정되며, 사용자는 공정 속도보다 오류 저감 사용자 화면(UI), 알람 우선 순위, 재시작 절차를 우선 확인한다.

이러한 효율의 중심에는 안전 표준 업데이트와 변경 관리 설계의 결합이라는 핵심 엔진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산업용 로봇 안전 표준 ‘ISO 10218-1:2025’ 및 ‘ISO 10218-2:2025’, 미국 산업용 로봇 및 로봇 시스템 안전 요구 사항 ‘ANSI/A3 R15.06-2025’ 등 강화된 안전 요구 사항이 적용되고 있다.

로봇 적용이 심화될수록 라인 재배치나 공정 변경 시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변경 관리 프로세스가 중요해진다. 최근 로보틱스 프로젝트는 기술 도입부터 점검 루틴, 재검증 프로세스까지 통합 설계하는 양상을 보이며, 운영 성과를 수치로 입증하는 기업이 차세대 표준을 점유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제조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데이터-연결-최적화를 완성하는 위존의 통합 DX 플랫폼을 만나보세요
(주)위존 부스: 3층 C홀 C716






Data & AI Foundation

AI 실행을 위한 데이터·인프라 기반 구축

- Smart Sensing: ESG·설비 환경 데이터 실시간 수집
- AI Compute Platform: 대규모 AI 학습·추론 환경 구축
- GPU Optimization: AI 워크로드 자원 효율 극대화 및 운영 최적화
- AI-Ready Infrastructure: 고성능 스토리지·스마트랙 기반 안정적 인프라 설계

Industrial Connectivity

중단 없는 산업용 네트워크 인프라 구현

- OT-Ready Network: 제조·설비 환경 최적화 산업용 네트워크
- Secure Connectivity: 안전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 Real-Time Monitoring: 실시간 네트워크 가시성 및 장애 대응 체계
- High Availability Design: 미션크리티컬 환경 대응 설계

Intelligent Manufacturing Platform

데이터 기반 자율 제조 환경 구현

- Unified Production Management: MES 중심 통합 생산 관리
- Connected Supply Chain: 협력사·물류 연계 최적화
- AI Manufacturing Intelligence: 공정 데이터 분석 및 예측
- Digital Twin Integration: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Safety & ESG Governance

안전·환경·설비 운영 리스크 통합 관리

- Smart CMMS (SaaS): 클라우드 기반 설비 자산 최적화
- Enterprise SHE: 전사 안전·환경 통합 시스템
- SAPAIR Platform: 중대재해 대응 자동화 및 리스크 제거
- Compliance Intelligence: 법규 점검·보고 체계 자동화

We^o20n

(주)위존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7층
 T. 02-555-7401 F. 02-555-7010 E. info@wezon.com
 wezon.com

역성장 끝, 다시 뛰는 머신비전...성장 엔진은 AI 소프트웨어

엣지 가속기·대형 비전모델·이벤트 센서, '보는 AI' 체급 달라졌다
유럽 AI법부터 산업 통신 표준까지...기술만으론 부족한 시대 열려

숫자만 보면 후퇴였다. 2024년 글로벌 머신비전 시장 매출은 56억 달러, 전년 대비 3.9% 역성장을 기록했다. 제조 경기 둔화와 장비 투자 지연이 겹친 결과다. 그런데 시장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AI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침체를 뚫고 새 성장축으로 올라서고 있다. 2025년 1.5% 회복에 이어 향후 5년 연평균 6.6% 성장이 전망되는 이유다. 카메라와 렌즈의 세계였던 머신비전이, 모델과 데이터의 세계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전환은 세 층위에서 동시에 벌어진다. 바닥에는 엣지 하드웨어의 도약이 있다. 2와트로 초당 수조 회 연산을 처리하는 초

소형 가속기가 등장했고, 이미지 센서 안에 추론 기능을 넣어 카메라 자체가 판단하는 '센서 내 AI' 칩도 상용화됐다. 그 위에는 대형 비전모델이 자리한다. 프롬프트 한 줄로 객체를 자동 분할하는 범용 모델이 라벨링 공정을 혁신했고, 텍스트만으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비전-언어 모델은 학습 데이터 없이 새 품목을 인식할 길을 열었다.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수만 건의 개발자 참여를 기록하며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꼭대기에는 센서의 진화가 있다. 마이크로와트 전력에 마이크로초 반응속도를 갖춘 이벤트 기반 센서가 고속·저전력 3차원 인식의 문을 열었고, 카메라·라이다·



레이더를 결합하는 다중센서 융합은 로봇 물류부터 자율주행까지 핵심 인지 체계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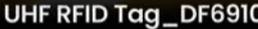
검사 라인에서 공장 데이터 모델까지

기술이 쌓이는 만큼 현장 풍경도 바뀌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라인스캔 카메라가 초당 수만 줄을 읽어내며 웨이퍼 결함을 잡아내고, 머신러닝 기반 자동 분류가 검사 장비에 기본 탑재되기 시작했다. 산업용 이상탐지 분야에서는 정상 데이터만으로 불량률 가려내는 비지도 학습이 주류가 됐지만, 지난해 주요 학회에서 '벤치마크와 실제 공장의 간극'을 정면으로 다룬 현장 가이드가 나와 주목받았다. 더 큰 변화는 머신비전이 공장 정보기술 체계와 합쳐지는 데 있다. 기가비트 이더넷·고속 직렬 통신 등 카메라 인터페이스 표준이 제조사 간 상호운용을 보장하고, 지난해 공개된 산업 통신 규격은 비전 장비의 상태·자산 정보를 공장 데이터 모델로 끌어올렸다. 카메라가 '눈'에서 '데이터 노드'로 승격된 셈이다.

기술만으론 부족한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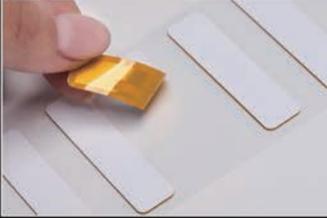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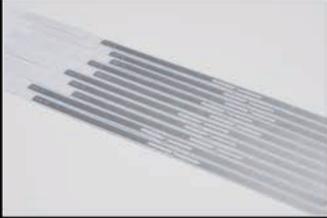
이제 머신비전 기업이 마주할 질문은 '정확도가 얼마나'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고위험 AI 규칙을 2026~2027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 1월 발효됐다. 드론·로봇에 탑재되는 카메라는 이동형 영상기기 안내서 적용 대상이다. 에너지 효율 역시 비용을 넘어 설계 기준이 되고 있다. 국제 벤치마크 기관은 추론 지연·에너지·정확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평가 체계를 운영하며, '초록빛 AI' 담론은 효율을 연구 평가축으로 올려놓았다. 결국 2026년 머신비전의 승부처는 세 곳이다. 첫째, 대형 비전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이터 관리 체계—공정별 성능 검증과 합성데이터 품질 표준화가 관건이다. 둘째, 규제를 설계에 녹이는 역량—고위험 분류, 투명성 의무, 개인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제품 기획 단계에서 다뤄야 한다. 셋째, 현장 변화에 버티는 강건성 공학—조명 교체·공정 변경 같은 변수에 모델이 스스로 적응하는 기술과 운영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머신비전의 다음 장은 '더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책임지는 것'에서 갈린다. 카메라가 데이터 노드가 된 시대, 기술·표준·규제를 하나의 체계로 엮는 기업이 새 판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UHF & HF RFID Tag specialist since 2004

RFCAMP Ltd.

 <p>UHF RFID Tag Fastener TK</p>	 <p>UHF RFID Tag DF3010</p>	 <p>UHF RFID Tag InCon AS</p>
 <p>UHF RFID Tag Tray</p>	 <p>UHF RFID Tag Nail</p>	 <p>UHF RFID Tag Blade</p>
 <p>UHF RFID Label Tag HT4310</p>	 <p>UHF RFID Label Tag Library3005</p>	 <p>HF RFID Tag 5151MT</p>

HQs.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B동 806-1호
 Tel. 02-593-8808

AI가 창고 문을 열자 물류산업 체질이 바뀌었다

에이전틱 AI·자율 로봇·디지털 트윈...‘데이터 기반 운영’이 새 표준으로
탄소·보안·인력 과제는 숙제...지속가능한 스마트물류 해법 필요

지난해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잠정)이 272조 원을 넘어서고, 2024년 택배 물동량은 59억 5,000만 개(전년 대비 +15.48%)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116.3회. 온라인이 ‘소비의 기본 채널’이 된 지금, 스마트물류는 유행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도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AI·디지털 전환 가속, 이커머스 속도 경쟁, 고효율·생산인구 감소를 핵심 변화로 진단하며 스마트물류를 ‘국가 물류체계의 체질 개선’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변화의 핵심은 기술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데 있다. 가트너는 2025년 공급망 기술 트렌드로 에이전틱 AI, 의사결정 지능, 자

율 데이터 수집, 지능형 시뮬레이션, 다기능 로봇을 제시했다. 공통 키워드는 ‘닫힌 고리(Closed-loop)’ 운영이다. AI가 실시간 수요 변화와 재고 신호를 읽어 작업 할당·우선순위를 자율 결정하고, 드론·모바일 로봇이 재고실사를 자동 수행하며, 디지털 트윈이 경로와 창고 레이아웃을 시뮬레이션한다. 계획·실행·검증이 연결된 운영으로 재설계되는 것이다.

현장과 정책, 동시에 움직인다

현장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국내 물류센터 임차시장은 자동화 시설 선호, 수요 대



형화, 3PL 중심 구조 강화가 뚜렷하다. 국내 물류창고의 약 36%가 2000년 이전 준공이라는 노후화 진단 위에서 자동화 투자 논리는 더욱 강해진다.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LX판토스 등 대형 사업자의 확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통해 이차보전·용자·용적률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소·중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라스트마일도 ‘속도 경쟁’을 넘어 무인화와 인프라 정책이 결합되는 단계다. 정부는 로봇배송 상용화(2026년), 드론배송 상용화(2027년), 도심 내 MFC 허용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DHL은 자율운송이 운전자 부족·사고 감소·탄소 저감이라는 삼각 과제를 동시에 다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물류 야드·항만 등 제한된 공간에서의 자동화가 먼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물류의 남은 과제는 ‘지속 가능성’

그러나 명암은 있다.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 비중이 28.2%까지 오르며 풀필먼트 수요가 급증했지만, 디지털 전환이 심화될수록 사이버보안 리스크도 커진다. AI·IoT·클라우드 연결성이 늘수록 공격면이 확대되고, 물류 네트워크가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그린 물류 역시 ‘친환경 차량 도입’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로 배출을 측정·보고·검증(MRV)하며 공급망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물류’를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다. AI 도입이 ‘툴 구매’가 아니라 업무 표준·예외처리 규칙·데이터 계보·KPI 연결로 성과가 결정되는 만큼, 데이터 품질과 감사 가능성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인력·제도의 병행이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물류 AI 대전환 추진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현장 데이터·표준·법제도를 함께 다루는 실행 프레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탄소·보안의 내재화다. 온실가스 관리와 사이버보안을 ‘비용’이 아니라 거래 지속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 모델에 녹여야 한다.

스마트물류는 더 이상 ‘자동화 장비를 더 들이는 것’이 아니다. AI와 데이터로 계획→실행→검증의 닫힌 고리를 얼마나 촘촘히 굴리느냐가 경쟁력을 가른다. 이 전환이 진정한 산업 표준으로 안착하려면 기술·제도·환경의 균형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김재황 기자 (eltred@hellot.net)

PICKIT 4.0

로봇 비전의 새로운 시대 정식 출시

HD2 카메라 시리즈

- 0.1mm 초정밀 감지
- 처리속도 70% 향상
- 전용 GPU 탑재

In-Line Measurement

인라인 측정 시스템

89개 홀 측정

59초 내 완료

4대 로봇 연동

적용 분야

홀측정

빈피킹

샌딩

폴리싱

조립

디팔레타이징

정부, CBAM 대응 15건 지원 제공...추가 지원 방안 논의도

산업부, 기후부 등 관계 부처 실무 회의 개최...CBAM 대응 15건 지원 제공
철강 등 6대 고탄소 품목,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비용 부담해야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는 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CBAM 대응 실무 회의를 개최해 올해 세부 지원 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간 CBAM은 EU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역외에서 생산해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고탄소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CBAM에 따라 EU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CBAM에 따른 탄소 비용은 수입 다음 해에 청구된다. 업계가 “올해는 조용하지만, 내년에 영수증이 몰려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유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 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 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컨



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 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탄소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 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셋째, 기업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 과정 등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 부처·유관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 직무대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넘어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축 설비 설치 지원 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어려워하는 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이차 보전 지원 규모 3조원으로 대폭 확대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초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 대출 지원 이차 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 경제 활동, 국제 감축 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 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 한도는 기업 집단별 최대 2조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 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 기관은 외부 기관을 통해 감축 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 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 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 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이차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다.

중소·중견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 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 검증 절차도 간소화한다. 감축 계획에 대한 외부 기관 검증을 금융 기관의 녹색 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 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스마트미디어 그룹
BM 주식회사 첨단

산업AX KOREA 2026

AI Transformation,
산업의 판단 구조를 바꾼다

AX

COMING SOON

참가 기업 및 참관객 모집 중

2026년 6월 16일 | 코엑스 3층 E홀 | 컨퍼런스 & 쇼케이스

후원

(사)한국머신비전산업협회
Korea Machine Vision Industrial Association

i-DEA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인공지능 전환(AI) 이해도 1%의 벽...“제조 현장에 필요한 건 스텝 바이 스텝”

인터뷰_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

제조 인공지능 전환(AI)은 ‘필요성의 공감’과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싸움이다. 인공지능(AI) 도입은 원가·품질·납기와 직결되는 경쟁력 문제로 인식이 확장되는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중견 제조 현장에서 AI 프로젝트는 개념증명(PoC) 단계에서 멈추거나 일부 공정의 시범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장은 “중소 기업의 AI 이해도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하며, 한 번에 완성형을 목표로 하기보다 단계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바라보는 AI의 출발점은 데이터를 읽고 의사결정의 방식을 바꾸는 공장 운영 전환이다. 안 단장은 스마트공장 정책이 지난 10여 년간 ‘디지털화(Digitalization)’ 기반을 구축했고,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뒤 5~6년 동안 DX 중심의 고도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DX)과 AI는 집을 떠받치는 두 기둥과 같다”고 비유하며 “먼저 데이터

가 흐르는 길을 열어 DX를 쌓고 그 위에서 AI가 가치로 작동하는 AI를 엮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I를 ‘양품과 불량률 구분하는 판단의 AI’로 규정하면서 향후에는 원인을 설명하고 공정 조건을 제안하는 ‘추론 AI(Inference AI)’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장은 AI 도입 걸림돌로 초기 도입 비용(44.2%)과 전문 인력 부족(20.5%)을 꼽으며, 투자와 인력의 제약이 실행 속도를 늦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정부 지원 사업을 결합해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며, 재고 운영이나 원가 구조 개선도 데이터 분석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전략으로는 목적에 따른 이원화를 제시했다. 즉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생산 데이터는 현장 서버에 두고, 경영 판단용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보내는 방식이다. 그는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확장도 서비스 활용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ESG와 수출 규제 대응이 AI를 필수로 바꾸는 압력이라고 짚으며 디지털



제조품여권(DPP)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QR 코드 형태로 제품의 지표 데이터를 제시하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탄소량을 사람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로 산출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진단이 울산·대구·충북에 지역 기반 제조 AI 센터를 구축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안 단장은 ‘자율형 AI 트랙(자율형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2억 원씩 매칭해 총 4억 원 규모의 AI 중심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AI 분야에 약 100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편성됐고, 공고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중소 상

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제조 AI 신속 상용화 프로젝트(AI-Sprint 300)’, 약 1200명 규모의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도 병행된다.

안 단장은 “중소 제조기업의 AI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지원금 자체보다 지속 운용과 고도화의 체계를 먼저 세워야 하고, 현장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의하지 않으면 AI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재규 기자 (mandt@hellot.net)

“공장에 내려온 AI, 개념을 넘은 전환이 시작됐다”

인터뷰_한국산업지능화협회 이길선 전무

산업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운영은 이미 많은 기업의 일상이 됐다. 이제 산업계의 질문은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인공지능은 공장과 설비,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며, 그 전환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인가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이 질문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제도와 현장 양쪽에서 떠받쳐 왔다. 이길선 전무는 그 시간을 “개별 기업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 역량을 산업 단위로 연결해 온 과정”이라고 정리한다.

협회의 가장 큰 성과로 그는 법·제도 기반 마련을 꼽는다.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민간 대표 특수법인으로 제인가를 받으며, 국가 DX 정책의 공식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개별 기업 단위로 흩어져 있던 디지털 역량을 ‘산업 AI 얼라이언스’라는 협력 체계로 묶어낸 점이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가전, 미래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구조를 민간 주도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이길선 전무는 앞으로의 경쟁력을 “기술을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현장에 적용했느냐의 문제”라고 정의한다. 자동화와 DX의 시대를 지나, 향후 10년은 AI가 산업 전반에 내재화되는 AI의 시대로 접어든다는 판단이다. 협회가 그리는 중장기 비전 역시 ‘산업 AI 내재화를 통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산업 AI EXPO와 같은 대형 행사를 통해 기업 간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데이터 플랫폼과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연계해 기술의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동시에 지원한다. DX 아카데미와 산업 AI 교육 확대 역시 중요한 축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 부족과 현장 적응 문제를 동시에 풀겠다는 전략이다.

2026년을 향한 핵심 과제로는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이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M.



AI(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단순 공정 자동화를 넘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제조 환경 구축에 본격 나선다. 동시에 AI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협회는 TIPS 운영 기관으로서 초기 창업 단계부터 보육·투자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 중이다. 기술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해소도 중요한 역할이다. 협회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지원 기관으로서 AI와 로봇 안전 기준 마련에 참여하며, 실증 특례 확대와 정책 제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데이터 파편화와 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업이 데이터 주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

게 연결·공유할 수 있는 분산형 구조를 통해, 탄소 규제와 공급망 데이터 요구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길선 전무는 2026년 산업계를 관통할 키워드로 ‘Physical AI’를 꼽는다.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과 설비, 자율주행과 결합해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AI가 산업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AW 2026을 “산업 AI 내재화가 개념을 넘어 실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무대”라고 표현한다. 기술을 보여주는 전시를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를 통해 산업의 다음 방향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데이터 통합 · 최적화는 기업 생존 필수...AI 기반 포트폴리오로 문제 해결”

인터뷰_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권지웅 대표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부상한 가운데,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는 자동화와 에너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는 전략으로 제조업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AW 2026에 참가해, 국내 제조 현장을 직접 만나 기술 비전과 해법을 공유한다. 권지웅 대표는 “국내 제조업을 이끄는 다양한 고객을 한 자리에서 만나, 슈나이더가 지향하는 산업 자동화의 방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메인 테마는 ‘Welcome to Industrial Automazing - Your Energy Technology Partner’다. 권 대표는 이를 두고 “자동화가 단순한 설비 고도화를 넘어 사람과 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I 기반 데이터 시각화, 통합 자동화,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지속가능성을 보다 직관적인 스토리로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동화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도 빠르다. 권지웅 대표는 최근 흐름을 ‘지능형 자율제조

로의 전환’으로 정의한다. 그는 “과거에는 부분 자동화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설비가 스스로 판단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피지컬 AI를 통해 설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기술과,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화가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자동화는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기후 위기와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의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AW 2026 현장에서 슈나이더일렉트릭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통합 자동화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End-to-End & One Solution 전략을 통해 AI와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화가 결합된 자율제조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 솔루션은 AI 기반 실시간 운영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반 데이터 수집 영역, 그리고 실제 제조 환경에 적용 가능한 통합 자동화·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이 강조하는 차별화 포인

트는 ‘개방형 자동화’다. 권 대표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수”라며 “에너지 관리와 자동화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공정 효율뿐 아니라 에너지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제어한다”고 설명했다. 단절된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고, AI가 현장을 지휘하는 진정한 통합이 자동화의 본질이라는 판단이다.

시장 경쟁력 역시 ‘에너지 기술 파트너’라는 포지셔닝에서 나온다. 자동화와 전력,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하나의 기술 체계로 묶어 생산 공정과 에너지 사용 방식을 동시에 혁신한다는 접근이다. 권지웅 대표는 “고객의 설비

와 공정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은 이러한 전략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자동화·에너지 관리·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구현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권 대표는 “이 혁신은 혼자서 완성할 수 없다”며 “기술과 파트너십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핵심은 제품이 아니라 연결...진짜 통합 자동화 구현했다”

인터뷰_LS일렉트릭 이유미 상무



자동화 산업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전환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이 변화를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닌,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흐름으로 바라본다. LS일렉트릭 이유미 상무는 현재의 상황을 두고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던 시기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큰 변화의 한 가운데”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Automation World 2026 무대에서 분명히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LS일렉트릭이 진단하는 자동화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더 이상 ‘속도’가 아니다. 이유미 상무는 “이제 자동화의 가치는 지능에 있다”고 말한다. AI를 기반으로 한 판단 능력,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영, 그리고 안전과 보안까지 통합하는 구조가 향후 산업 자동화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라는 설명이다. 설비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전시에서 LS일렉트릭이 전면에 내세우는 축은 신제품 제어기, PLC다. 이유미 상무는 “PLC를 중심으로 물류자동화, Manufacturing AI, 그리고 미래공장으로 이어지는 자동화의 다음 단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단일 제품 소개에 그치지 않고, 제어 기술을 기점으로 공정과 운영, 데이터 활용까지 확장되는 구조를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차별화의 포인트 역시 명확하다. LS일렉트릭이 말하는 경쟁력은 개별 제품 성능이 아니다. 이유미 상무는 “핵심은 제품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단언한다. PLC를 중심으로 물류 시스템, AI 기반 분석, 현장 운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진짜 통합 자동화’를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분절된 설비와 시스템을 단순히 병렬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묶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접근은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LS일렉트릭은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객의 생산성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를 지향한다. 이유미 상무는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 현장 중심의 기술력, 그리고 빠른 대응 역량이 시장에서 분명한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동화 시스템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증된 기술력과 대응 속도를 핵심 자산으로 본다.

2026년을 향한 목표 역시 단순하다. 자동화, 에너지, 디지털 기술을 하나로 연결해 고객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하는 것. LS일렉트릭은 이제 축이 분리된 채로는 산업의 다음 단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본다. 이유미 상무는 “자동화의 진짜 가치는 연결을 통해 완성된다”며, 이번 전시가 그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물류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다...공급망 전략 자산이 핵심 경쟁력”

인터뷰_현대글로벌비스 한규현 상무

글로벌 공급망은 더 이상 '연결'만으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 물류는 비용 절감의 수단을 넘어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가 '글로벌 스마트 SCM 전문기업'을 전면

에 내세운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물류·해운·유통이라는 전통적 영역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과 AI 기반 스마트 물류까지 아우르며, 공급망 전반을 하나의 운영 체계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동화 설비와 로보틱스, 데이터 기반 운영을 결합한 'Physical AI' 전략은 물류 현장의 실행력에 방점을 찍는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현대글로벌비스는 스스로를 '물류기업'을 넘어 '스마트 SCM 전문기업'으로 규정한다.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와 스마트 물류 솔루션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신사업을 본격 확장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현대글로벌비스 한규현 상무는 “고객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와 첨단 물류정보시스템, 전문 인력

을 결합한 원스톱 토털 로지스틱스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운송·보관·하역은 물론 물류 컨설팅까지 포함한 종합 서비스로 고객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운 사업 역시 중요한 축이다. 자동차운반선을 중심으로 벌크선과 LNG선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선대 운영 체계를 구축해왔다. 한 상무는 “지속적인 선대 투자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며 “친환경 선박 도입과 데이터 기반 선대 운영 최적화를 통해 글로벌 해상 운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도 속도를 낸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차세대 핵심 분야로 보고,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진단·운송을 거쳐 재활용·재사용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 중이다. 그는 “급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물류 전문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AW2026에서 구체화된다. 현



대글로벌비스가 제시하는 키워드는 'Physical AI for End-to-End Logistics'다. 한규현 상무는 “지난해 엔드투엔드 물류 비전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그 비전이 실제 운영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전시장에는 입고부터 보관, 피킹, 출고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자동화 물류 환경이 구현된다. 팔레트 셔틀과 WCS 연동, 로봇 피킹과 원키트 자동화, 오토스토어와 AMR을 결합해 현실적인 자동화 모델을 제시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를 통해 현재의 운영 효율화는 물론, 미래 공급망 변화까지 대비하는 기술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한 상무는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 외형 성장뿐 아니라 내실 있는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스마트 SCM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AW2026은 현대글로벌비스가 그리는 물류 자동화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AI 결합한 제조 플랫폼 통해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인터뷰_록웰오토메이션코리아 김낙현 상무

전 세계 제조업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숙련 인력 부족, 사이버 보안 위협까지 복합적인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며 기존의 생산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록웰오토메이션코리아는 이러한 변화의 해법으로 'AI 기반 자율 제조'를 제시한다. 김낙현 상무는 “제조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이를 단순화하고, 스스로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자율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록웰오토메이션이 AW 2026을 중요한 무대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상무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니라, 제조 현장이 직면한 문제를 AI와 자동화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며 “다양한 산업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생산성과 운영 효율 문제에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동화 산업의 주요 이슈로는 탄소 배출 감축, 시스템 최적화, 설비 수명주기 관리, 생산성 향상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엣지·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산업용 AI·머신러닝, 생성형 AI, 자율 운영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접근이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김 상무는 “자동화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과거에는 반복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 록웰오토메이션이 전면으로 내세운 개념은 'AI 강화형 생산 시스템'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AI가 공정과 제어 설계를 사전에 검증해 엔지니어링 효율을 높인다. 운영 단계에서는 생산 계획과 일정, 공정 레시피, 자원 구성을 AI가 자동으로 조정해 품질과 재고, 납기 관리를 동시에 고도화한다.

물류 영역에서는 AI가 적용된 자율주행로봇



을 통해 공장 내 자재 흐름을 최적화하고, 자동화 단계에서는 센서와 컨트롤러, 모션·드라이브, 현장 인터페이스가 AI를 중심으로 통합된다.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AI가 설비 이상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 다운타임을 최소화한다.

김낙현 상무는 록웰오토메이션의 차별화 포인트로 “설계부터 운영, 물류, 자동화, 유지보수까지를 하나의 엔드투엔드 자율 제조 체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각 제조 기업은 자사 공장의 디지털 성숙도

와 경영 목표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록웰오토메이션은 AI 강화형 생산 시스템을 '연결된 엔터프라이즈'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자동화를 넘어 산업 운영 방식 자체를 재정의한다는 구상이다. 김 상무는 “AI와 자동화를 결합한 자율 제조 생태계를 통해 제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지능화 다음 단계 위해선 현장형 플랫폼 필요...검증된 솔루션으로 경쟁력 입증”

인터뷰_(주)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 권영환 팀장

최근 자동화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는 단연 AI가 꼽힌다. 설비 운영 효율을 높이고 로봇틱스 활용을 고도화하는 흐름 속에서 예지정비와 안전 모니터링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분야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데이터가 흩어져 있고 과거 설비 운영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해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

(주)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DDI)의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AI를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솔루션을 통해 제조 현장의 지능화를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권영환 팀장은 “앞으로의 제조 경쟁력은 기업 내부에 축적된 지식과 데이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I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AW 2026에서 DDI는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플랫폼과 응용 솔루션을 선보이고,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개할 솔루션은 AI 예지정비·품질관리, AI 안전관리, 제조 AI 에

플리케이션, OT 보안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AI 예지정비와 품질관리 영역이다. 가스터빈과 같은 대형 설비부터 중·소형 설비까지 고장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도록 설계됐으며, 비파괴 검사 데이터와 온도·진동 센서 데이터를 AI가 학습·분석해 돌발 정지를 최소화한다. AI 챗봇과 자동 보고서 기능을 통해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점도 특징이다. 대표 솔루션인 PreVision™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데이터 기반 예지정비 솔루션으로, 현재 공공·민자 발전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OEM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발전 주기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를 넓혔다.

D-Vision은 원자력 주기기 등 최고 수준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용접 결합 식별을 통해 품질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AI 안전관리 플랫폼 역시 주목할 만하다. 실시간 CCTV 분석과 IoT 기반 화재 감지 솔루션을 통합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Smart EHS’를 통해 안전 메시지 발송과 자동 보고서



생성을 지원한다. 여기에 법령 AI 분석 솔루션을 결합해 최신 규제를 사내 규정과 자동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규제 대응 속도를 높인다.

제조 AI 애플리케이션은 업무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AI OCR을 활용해 이미지나 스캔 문서에서 텍스트를 자동 추출하고, 계약서·규정집·HR 문서 등을 손쉽게 검색·요약·번역할 수 있다. Business Intelligence와 MLOps를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일상화하는 것도 목표다.

권영환 팀장은 “고객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DDI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라고 말했다.

DDI는 2026년을 제조 디지털 혁신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고도화와 함께 예지정비, 품질관리, 안전 관리, 데이터 분석 영역의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AI는 도구 넘어 ‘일하는 주체’...인텔리전트 팩토리 실체 제시”

인터뷰_포스코DX 김하영 프로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일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설비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지나, AI가 현장과 사무 전반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DX가 제시하는 ‘AI Workforce’ 전략은 이러한 변화를 산업 현장의 언어로 풀어낸다. 사무 환경에서는 생성형 AI와 AI Agent가 업무를 보조하고, 제조 현장에서는 AI Operator와 산업용 AI가 공정과 설비를 제어한다. OT와 IT, AI와 로봇, 제어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 속에서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AW 2026 전시를 통해 포스코DX는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낼 계획이다. 김하영 프로는 “사무 환경과 제철소 현장에 AI Operator와 AI Employee를 실제로 개발·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AI 기반 업무 혁신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예정”이라

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특화형 생성형 AI 도구인 P-GPT와, AI Agent를 직접 생성·운영할 수 있는 AI Workforce 플랫폼을 공개해 AI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자 영역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김 프로는 “개발자형 AI Workforce를 지원하는 ACE 플랫폼을 통해 AI를 활용한 개발 효율과 생산성 향상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도구 소개를 넘어, AI가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드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강민영 프로는 포스코그룹 차원의 방향성도 함께 짚었다. 그는 “포스코그룹은 제조 현장 전반에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확산해 인당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용 AI와 로봇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기술 기반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 포스코DX는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등 실제 산업 현장에 OT·IT·AI 기술을 융합하고, 로봇과 산업용 AI, 제어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DX는 단일 기술이나 개별 솔루션이 아닌, 공정 자동화와 제어, 로봇, AI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인텔리전트 팩토리의 실체를 제시한다는 목표다. 강 프로는 “포스코그룹의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함께 구현해 온 기술 역량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DX는 고위험·고강도 작업 환경에 산업용 로봇을 적용해 안전한 현장을 구현하는 한편,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통해 물류 관리 방식의 변화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ESG 경영 기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전시는 포스코DX가 지향하는 DX와 AX의 방향성을 현장 중심의 언어로 보여주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자동인식은 핵심 기반 기술...“글로벌 표준 · 현장 레퍼런스 확대가 관건”

인터뷰_한국자동인식산업협회 이진원 회장

공급망과 생산·물류 현장을 관통하는 데이터 인프라로서 자동인식기술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동인식산업협회(KAIIA)의 수장 이진원 회장은 지난해 국내 자동인식 산업에 대해 “경기 불확실성에도 디지털 전환(DX) 수요와 규제·표준 변화가 맞물리며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물류·유통·제조뿐 아니라 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정확한 식별과 추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시각이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이 산업은 바코드·무선주파수식별(RFID)·비전·센서 기반 인식 기술이 현장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여기에 이러한 자동인

식 방법론이 플랫폼·서비스의 일부로 통합되면서, KAIIA 회원사들 역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사업 역량을 키워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물류·유통 영역의 DX 가속화 양상에 대해 짚었다. 이와 연결해 식품·의약·산업 안전 분야에서의 ‘추적성’ 요구가 강화되고, GS1(Global Standard #1)·AIM(Association for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Mobility) 등 국제 표준 기구의 활동이 확대되는 점도 같은 흐름으로 봤다. 협회는 이 기관들과 함께 국내 기업의 글로벌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표준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파급을 강조했



다. 데이터 식별 체계가 기업·산업·국가 단위로 연결되는 만큼, 표준을 놓치면 단순한 호환성 문제가 아니라 운영 리스크와 비용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도록 해외 규격, 적용 사례 등 동향을 정리해 공유하고,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공통 프로토콜을 만드는 데에도 역할을 넓혀겠다는 방침이다. 기술 융합 흐름도 뚜렷해졌다. 이 회장은 “특정 기술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RFID·바코드·비전·센서 등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융합형 솔루션을 구성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생산과 물류 라인에서는 바코드가 기본 인프라 역할을 하고, 특수 환경 공정에는 RFID가, 품질·안전 영역에서는 비전·센서가 결합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협회는 기술 세미나, 회원사 탐방, 전시회 공동 참가 등을 통해 융합 레퍼런스를 확산하고, 국내 기업이 시스템통합(SI)형 파트너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동안 협회가 달성한 실질적 성과는 전시·교류를 통한 네트워크·인지도 강화가 꼽혔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국제인쇄산업전시회(K-Print), 유통·물류 및 공급망 관리 산업전(SCM FAIR) 등 국내 주요 전시회에 참가해 비즈니스 접점을 넓힌 점이 이 배경이다.

또한 정기모임, 회원사 탐방, 사장단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 리더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AIM 글로벌 정기회의’, ‘GS1 코리아 푸드 QR 설명회’ 등 대외 활동도 이어갔다.

이 같은 활동을 전개한 협회는 올해 ▲글로벌 표준 연계 ▲현장 레퍼런스 확대 ▲인력·생태계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 기업의 애로로 지목되는 마케팅·영업 채널 및 초기 레퍼런스 확보, 인력·기술 투자 확대, 글로벌 정보 확충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원 회장은 “AI·로보틱스·에지컴퓨팅·통신·디지털트윈과 결합한 피지컬 AI 인프라가 자동인식 기술의 가까운 미래상”이라고 전망하면서 “협회가 글로벌 표준·규제 어젠다를 선점하고, 데이터·플랫폼 관점에서 자동인식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비전을 덧붙였다.

최재규 기자 (mandt@hellot.net)

(사) 한국자동인식산업협회 회원사 가입안내

가입안내

(사)한국자동인식산업협회는 2018년부터 자동인식산업의 확산 및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가입하시면 관련업계에 회사소개 및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는 물론, 협회에서 추진하는 정부 또는 연구기관과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련 산업통계 및 마케팅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 드립니다. 이외에도 산업 주요기술/트렌드 세미나 및 전시회에 참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가입방법

가입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또는 E-MAIL 제출 (양식제공)

회비

정회원사
(가입비: 한시적으로 무료)
(연회비: 600,000원)
*가입비 및 연회비는 변동될 수 있음

납부안내

농협 355-0053-7872-73
(예금주: (사)한국자동인식산업협회)
*영수증 발급 가능

No.	회사명	홈페이지	대표번호
1	(주)바울테크 (회장사)	www.barall.co.kr	02-6380-2000
2	(주)제이원	www.joneco.com	031-458-9300
3	(주)티비에스	www.tbs2000.co.kr	032-665-0014
4	(주)시그너스 정보기술	www.cygnusin.co.kr	02-2108-1600
5	투테크주식회사	www.tootech.co.kr	02-886-6506
6	(주)헬로넷	www.hellot.net	02-3142-4151
7	(주)하이온아이티 (사무국장사)	www.hionsmart.com	02-2038-0018
8	(주)현암바씨스	www.hyunam.com	02-359-7177
9	(주)바이텍테크놀로지	www.bitekps.com	032-834-4860
10	(주)씨에스프론티라인	www.csfl.co.kr	031-738-1180
11	(주)알에프캠프	www.rfcamp.co.kr	02-593-8808
12	삼미정보시스템(주)	www.sammicomputer.co.kr	02-790-5505
13	아이온텍(주)	www.aiontec.com	02-2082-3800
14	(주)어드밴포스	advanpos@naver.com	02-837-6610
15	(주)에스오에스정보기술	www.sosit.kr	02-2233-5552
16	마이클앤선솔루션(주)	www.brother.co.kr www.godexkorea.com	02-3446-5126
17	이주데이터시스템(주)	www.ejudata.co.kr	02-6925-4700
18	(주)유니정보	www.uniinfo.co.kr	02-6494-0360
19	(주)유엔아이씨	www.uniconnected.co.kr	02-517-3561
20	(주)티원솔루션	chosangwon1125@daum.net	02-638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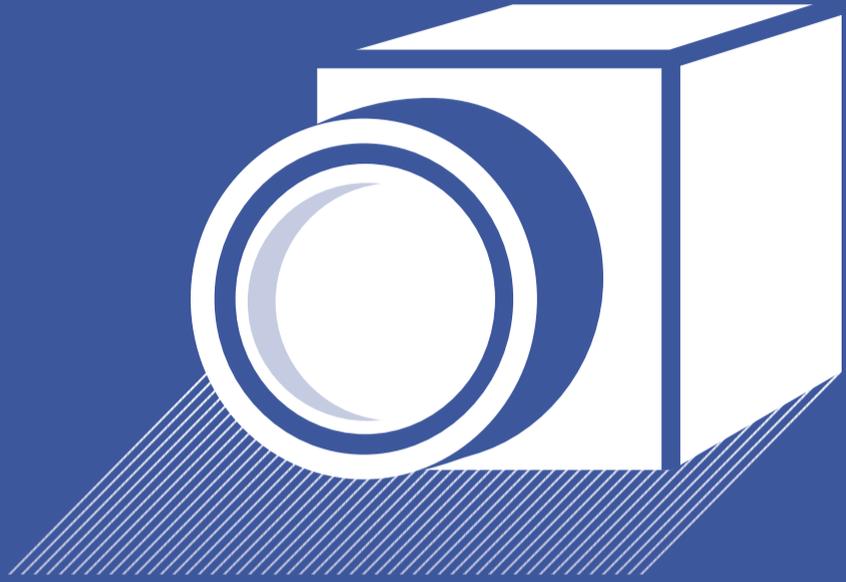
(사)한국자동인식산업협회 사무국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5, 1304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 2차)
Tel. 02-2038-0018 Fax. 02-2038-0058
E-mail. hsc@hionit.com Website. www.kaiaa.kr



Si-Tech Innovation Award 2026

Machine Vision Tech Innovation 부문 공모

초격차 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국내 최고의 머신비전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시상



■ 공모기간: 2026. 6. 1 ~ 6. 30

■ 공모분야:

- ① Smart Factory Sector: Smart Factory Hardware Creative Division, Smart Factory Machine Vision Software/Solution Creative Division
- ② AI Machine vision sector: Non-Factory AI Vision Hardware Creative Division, Non-Factory AI Vision Software/ Solution Creative Division

■ 신청(추천)자격:

- ① 사내연구소 또는 과학기술인 등록완료 과학기술 혁신기업
- ② 머신비전 관련 기관장, 협단체장, 기업체 대표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단체
- ③ 3년이상 국내 머신비전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 시상규모: 4개부문 13개 시상부문

시상부문	시상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Smart Factory Sector & AI vision sector(1)
한국기술사회 회장상	Smart Factory Sector(2), AI vision sector(2)
전자신문 사장상	Smart Factory Sector(2), AI vision sector(2)
KISE 이사장상	Smart Factory Sector(2), AI vision sector(2)

■ 시상 혜택

- 코리아비전쇼(전시회) 참여시 부스 천정에 대형 배너 설치(장관상)
- 본 협회에서 10월 발간하는 협회보(소식지) 단독 광고 게재(장관상)
- 코리아비전쇼 장내 세미나 룸 외벽 전체 광고 진행 (모든 시상부문)
- (주)첨단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해당 제품 광고 게재(모든 시상부문)
- 주요 포털에 제품 수상기사 게재(모든 시상부문)

■ 주요 일정

- 온라인 신청접수: 2026. 6.1 ~ 6. 30(화)
- 심사(서류심사): 2026년 10월 중
장소: 첨단 교육장(마포구 서교동 소재)
- 시상식(예정): 2026년 10월 중 / 장소: 추후 공지

■ 접수방법 및 문의

- ①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info@kmvia.org
- ② 문의: 한국머신비전산업협회 02-897-5758 / info@kmvia.org

* 공모를 신청하는 모든 기업에 과학기술혁신기업 인증서 발급 (온라인 인증은 무료, 오프라인 인증 발행시 일부 금액 부담)





간편하게 구현하는 산업 자동화

최신 디바이스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플로어의 고도화



마우저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서울 코엑스에서 마우저 부스(A560)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